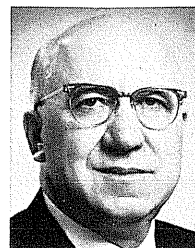




영감의 메시지



밀턴 아아르 헌터
칠십인 제일 회장단

물론경이 출현한 이래로 물론경의 참됨을 증거하는 고고학적 및 기타 과학적인 증거가 놀라울만치 급속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연구만으로서 는 결코 간증을 지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밀턴 아아르 헌터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많은 지성적인 사람들이 어찌하여 물론경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는 점에 의아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경의 기원, 보존, 출현 및 번역과 관련된 일들이 모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영적인 일을 받고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감화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고전 2:1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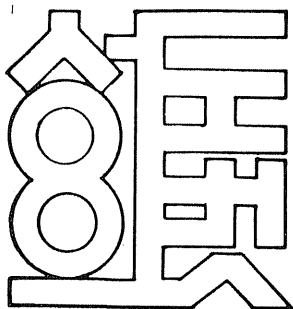
“따라서 성령의 감화를 받지 아니한 보통 사람들은 물론경과, 물론경의 예비와 출현을 위해 예수께서 행하신 바를 환상적이며, 조작적이고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성령이 인간의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론경의 본질에 대한 간증을 부여하면 물론경의 신성한 저술의 실재성을 알게 되고, 또 이 실재성은 그 사람의 전 생애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간증을 하고자 하게 됩니다. 나도 물론경이 참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간증을 드리는 바입니다.

표지 설명: 늘웨이의 탐험가 토르 하이엘달은 최근의 여행에 관하여 교회의 젊은 회원들과 토론하였다. 12페이지를 보면 그들의 질문과 대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탐험가와 그의 젊은 친구들 사진에 첨가된 표지 사진은 제작 중인 라 1 및 함창항해중인 라 2 그리고 선원들이 애완 동물로 데리고 있던 원숭이가 보급물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순서

영감의 메시지

- | | |
|-------------|--------------------------|
| 조셉 필딩 스미스 | 1 신권의 축복 |
| 말빈 제이 애쉬튼 | 3 이곳에서 그곳까지 |
| 매리온 다이 행크스 | 6 조건없는 사랑 |
| 해럴드 비이 리 | 9 신권의 책임 |
| | 12 유명한 탐험가 토르 하이엘달과의 인터뷰 |
| 존 에이 트베트네스 | 17 영적인 반복에 관한 자기 테스트 |
| | 18 질의응답 |
| 리차드 엘 이반스 | 20 잘 가르치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다 |
| 매리 프랏트 패리쉬 | 21 모두가 안전함 |
| 로비사 후다도 | 24 승리자 |
| 마벨 존스 개봇 | 28 앨마의 아들 |
| | 29 브리감 영과 사회에 대한 그의 책임 |
| 스터링 더블류 쉴 | 35 너희는…… 말찌니라 |
| 존 에이치 반덴버그 | 38 눈을 하늘로 돌리자 |
| 앨버트 엘 스테이플리 | 42 우리의 책임: 세상을 구원함 |



제 8 권
1972년

제 9 호
9 월 호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2년 9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제86호
편집경 발행인: 엘 에드워드 부라운
번역: 한국 번역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말알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인쇄소: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가: 1권 100원
1년본 국내 800원
국의 선박 5불
항공 7불
(송료포함)

● 대판장단

해럴드 비이 리
앤 엘론 태너
매리온 지 롬니

● 십이사도

스펜서 더블류 김볼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앨버트 엘 스테이플리
매리온 지 롬니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이 부라운
하우워드 더블류 헌터
골든 비이 힝크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팩커
말빈 제이 애쉬튼

신권의 축복



신권회 대회 1971년 10월 2일
요셉 필딩 스미스 전대관장

사랑하는 신권회 형제 여러분,
오늘 이 신권회 모임에서 여러분
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나는 오늘 인류에게 득
이 될 수 있는 신권 활용에 관해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신권은 복음을 관리합니다. 그
것은 주님께서 직접 위임해 주신
권능이며 우리 자신과 이웃들이
해의 영광으로 승영하여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바를 모두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
어진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 주신 초
기 계시에서 주께서는 이같이 이
르셨습니다.

“만일 네가 선을 행하고 또 끝
까지 충실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
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것이니,
구원의 은사보다 더 큰 것이 없음

이라.”(교성 6 : 13)

이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의 축복인 구원이 복음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게 되
고, 또 복음은 신권의 권능으로
관리되는 것이니, 신권은 우리 자
신과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축
복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점
이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신
권의 권능과 능력에 의한 것이니,
복음을 받아 들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인간의 생애에 안겨 줄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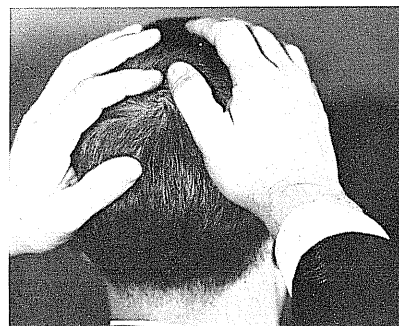
바로 이 신권에 의하여 인간이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는 우리 생애에 성령의 신성한 권
능을 끌어 들일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우리는 성약에 의해 멜기세덱
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점차 큰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된
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마4 : 4)
리라 약속되었습니다. 주께서도
우리가 이와같이 행할 때 가장 높
은 해의 영광에서의 승영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결혼은 “신권의 반차”인
것이며 부부가 서로 자신의 의무
를 참되고 성실히 행할 때 천국
과 왕좌가 약속되는 것입니다.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은 신앙있
는 가족에게 병자 축복을 할 수
있으며, 축복 받은 사람이 “죽기
로 정해지지 아니한”(교성 42 :
48)경우 병나음을 얻어 건강과 힘
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든 직분에서도
같습니다. 주께서 내리시는 축복



은 주님의 신권을 지니고 주님을 대리하여 사실상 주님의 종ियो, 봉사자며 즐겨 주님을 섬기고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과 온 세상에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신권을 소유한 모든 형제들에게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는 교회의 확고한 질서에 조화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과 이웃에게 축복을 안겨줄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합당할 수 있는 사람과 또 합당한 사람은 집에서나 외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는 부름에 응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축복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전당에서의 축복 즉 우리에게 내려 주는 신권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신권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가볍거나 적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의 인간들도 지구 창조와 함께 지상에 존재하던 사람들과 같이,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께서 하늘의 열림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내려 주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부과된 모든 의무를 배우며, 가장 성스럽게 신권을 간직할 수 있으며, 우리가 점차 큰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우리와 우리의 형제와 우리가 세상 방방곡곡에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 있도록 신권을 활용할 수 있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신권을 받은 모든 형제와, 직분에 성임된 형제와, 이에 성실한

형제에게 나는 지금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을 위하여서만 신권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흩어진 많은 사람 중에 기꺼이 회개를 하고 복음을 받아 들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축복을 나누어 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과된 다른 하나의 책임은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 방방곡곡에 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는 기꺼이 회개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훌륭한 형제 여러분과 함께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일에 나의 힘을 보탬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한편, 언제나 기꺼이 참여하고자 하는 바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바입니다. 아멘. 圖

이곳에서 그곳까지

신

권을 소유하신 수 많은 형제들이 이렇게 운집하신 앞에서, 오늘 형제님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생각하는 내 머리에는 대도시에서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르던 한 청년에 대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는 길을 잃었던 것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겠다고 생각한 그는 인도로 걸어가던 사람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이런이런 곳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한참을 머리 속으로 고충전물, 복잡한 교통, 어지러운 거리, 꾸불꾸불한 강, 다리, 굴 등을 생각하더니 그 행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특히 젊은 청년 중에 그들의 생활상의 위치로 인해서 이같은 대답을 생각나게 하는 것을 경험한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 청년 중에는 길을 잃고, 당황하며, 혼란되고, 공포, 질병, 불안 및 낙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이같이 곤경을 당하여, “내가 있던 곳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 갈 수 있겠습니까?” 혹은 “내가 원하는 곳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하고 물었을 때 “지금 이곳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는 대답을 얻게 된다면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악마의 제자들은 돌아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가르치며, 그대로 살아가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는가, 주위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어야지, 제다가 길을 잃는 것이 더 재미있지 않는가? 라고 유혹합니다. 악마는 하나님 사업의 적이며, 죄로 유인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무릇 선한 일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하며, 간악한 것은 악마에

게서 비롯하나니, 악마는 하나님의 적이라. 저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싸우며 죄로 인도하고 유혹하여 끊임없이 악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는도다.”(모로나이서 7:12)

큰 도시에서 길을 잃은 젊은 사람의 경험과는 달리 “물론이죠. 갈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 오세요”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말은 얼마나 행복한 말이 되겠습니까! 나는 길 잃은 젊은이에게, 세상의 모든 청년과 숙녀에게, 지금 있는 곳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내가 지닌 모든 힘을 다하여 강력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권의 팔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의 방대한 사회 봉사 프로그램은 우리의 청년들이 사회적,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미스 대관장께서는 오늘 밤 우리에게 우리가 지닌 신권을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길 잃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안정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밝혀 주신 바 있습니다.

청년들은 잠언에 속아서서 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염려하고 계시며, 위로와 친구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 오기를 바라십니다. 청년들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도자된 우리들은 청년들에게 잘 납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시간과 재능을 희생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히브리서 13:16)

앞으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십이사도 앨빈 제이 애쉬튼 장로

에게 긍정적이고, 행복하며, 풍성한 생활 방법을 전해 줄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현재 처한 곳에서 그곳까지 갈 수 있음을 증명한 나의 친구들이 겪은 경험을 잠시 형제님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나의 친구인 로저 로크는 최근에 유타 주립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나는 우연히 며칠 전에 로저를 면회할 기회가 있게 되었으며, 로저와 간수인 존 터너의 허락을 얻어 그의 이름과 생각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도소를 방문하기 위하여 그곳에 갔을 때 수감자들에게도 그렇겠지만 들어 가기는 쉬워도 나오기는 어려웠었다는 것을 젊은 아론 신권 소유자께서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나오기가 어려웠다고 느끼게 된 것은 바로 젊은 수감자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나를 멈추게 했을 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세운 청년과는 약 15분 동안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 시간은 나로서는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청년과 헤어지려고 하자 그는 “나와 함께 이야기를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 마지막 말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중에 생각해 보니 나는 그 15분 동안 24—25마디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주고 받았던 이야기는 우리가 좀더 주고 받아야만 할 이야기라고 믿는 바입니다. 이야기가 다소 옆으로 새어 나간 잠이 있습니다. 다시 로저의 이야기로 돌아 갑시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교도소에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나는 가족 누구를 찾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로서는 어느 누구도 가족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교도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정의 밤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봉사의 활동을 통해 나의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되신 부모님만 아니었더라면 나는 그 활동과 멀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나를 마치 친 아들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주 어렸을 때에 조차 이 같은 느낌을 지녀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분들과 또 다른 분들의 도움으로 나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 갈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교도소에 있게 된 것이 자랑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이곳에 있는 동안 최근 경험한 바에 대하여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는 남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들이라면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여 찾고자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자녀를 키울 때 그들 생활의 지침이나 지도가 있어서 키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는 로저가 개심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하여도 마음 속으로 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는 오랫동안 비뚤어진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생활을 이제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자신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과 감사하며 오늘날 그의 생활이 향하고 있는 방향에 대하여서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은 불행히도 적은 수에 지나지 않으며 동료들 사이에서 조소를 받기는 하지만 이 훌륭한 청년은 용기백배하여 유타 주립 교도소의 “하나님 분대”라고 동료들이 부르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현상태를 벗어나 개과하려는 결심이 확고한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나는 선교사와 함께 선교지역을 순방한 일이 있습니다. 접견

을 하는 동안 나는 몇 마더 물었습니다. “형제의 아버지는 교회 회원이십니까?”

“아닙니다” 하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회원이십니까?” 다시 그에게 물었습니다.

“적이나 두고 있는 정도입니다.” 하며 미소로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형제의 아버지께서 형제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바라셨습니까?”

그는 “아닙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바라셨습니까?”

“사실 어머니께서는 내가 선교사로 나가고 안나가는 것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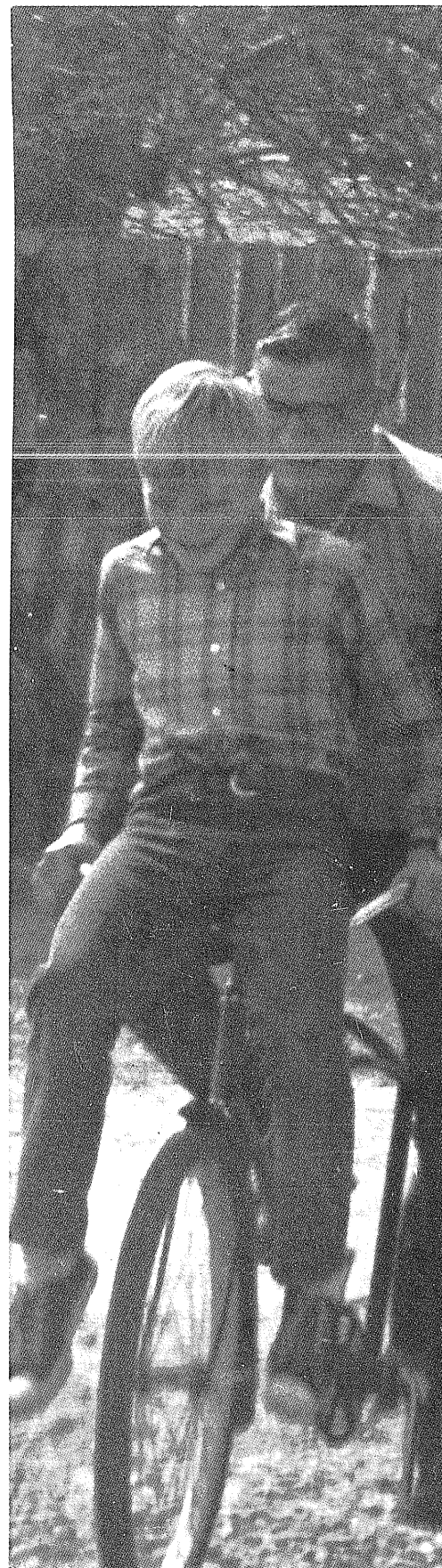
“그러면 장로님이 선교사로 나가도록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저였습니다. 저는 언제나 선교사가 되기를 바랐던 것이며, 또 선교사로서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청년의 눈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듣고 또 장로님의 영으로부터 느끼는 바로는 장로님은 틀림없이 성공적인 선교사가 되실 줄 믿습니다.” 바로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아버지도 무관심, 어머니도 무관심이신데 내가 무엇 때문에 선교사를 나간단 말입니까?”하며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겠지만 그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훌륭한 선교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의 중요성과 행복에 이르는 그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인상으로는 그는 한때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자신이 어느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과 어떻게 하여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확고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개월 전 청소년 감화원을 방문했는데 예배 시간 바로 전에 서로 면회를 허가 받은 세 소녀에게 특히 관심



이 집중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 살부터 열 두살 정도의 소녀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들은 며칠 전에 문제를 일으켜 잠시 동안 유치된 아이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시간을 기다리고 있노라니까 그들은 서로 심각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들이 주고 받는 대화 내용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 호기심 때문에 그들의 대화를 조금이라도 듣고자 그들 옆으로 갔습니다. 한 소녀가 면회 온 친구에게 “오늘이라도 나를 집으로 데려 가려는 사람이 올까 모르겠어. 나를 바라는 사람과 함께 산다면 정말 좋을거야.”

그녀는 버림을 받아 온 열살된 고아였던 것입니다. 이 소녀의 부모는 딸이 감화원에 유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 집을 덜어 시원하다는 인상을 주워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후에 이 소녀가 정부의 허가를 얻은 우리 교회의 봉사 기구에 의해서 양녀로 새로운 가정에 입양되어 사랑과 부모의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대단히 기뻐합니다.

입양을 한 부모들은 양녀가 사랑가운데 가족의 품속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 갈 길을 찾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약을 남용하는 많은 사람들 역시 결사적으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돌이키는 길은 험난하며, 투쟁은 처절합니다. 그러나 이를 시도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때 기쁜 마음 그지없으며, 관심과 배려와 이해를 하여 온 친구와, 자원한 신권 소유자에게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뜻보아서, 무관심과 성급한 판단 그리고 인내력의 결여로 “당신은

이제 구제될 수 없소. 이곳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요. 너무나 먼 길을 방황하였오”라고 말해 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수 개월 동안 중독성 약을 사용하여 온 숙녀를 만나 세 시간 이상이나 진지한 대화를 한 후에 그녀가 한 말은 “나를 차 버리지 않아 감사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후 두 번을 더 방문하자 그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물음에 진지하게 그렇노라고 대답하자, “감사합니다. 노력해 보겠어요. 교사 자격증을 얻으려면 세 학기만 더 공부하면 됩니다”고 말합니다. 이 소녀는 길을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이곳에서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던 것이며 지금 그녀는 옛 집으로 돌아 가는 도상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신권을 소유한 우리 모든 형제에게 감히 제의하고자 하는 바는 열성을 다하여 잠시 길을 이탈한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 인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범과 사랑과 설득으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신권 소유자 여러분은 잠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소유한 신권을 존중하며 자신을 키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심금을 울리는 진리의 말씀을 봅시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양해를 구하면서 지금 인용한 말씀을 반복하되 몇 마디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나를 도우려 하지 않았도다.”

주께서 그 족속을 모으심에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소유한 신권에 부과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고등평의회 고문으로서, 전문적 자진봉사자로서 그리고 천부적 재질의 조력자로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주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요 21:16 참조)고 하셨을 때 주께서는 우리 안에 안전하게 있는 양만을 이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오늘 저녁 이 자리에서 주께서 잃은 양을 찾아 우리로 데리고 오시는 때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들에는 곡식이 익어 추수하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은 돌아 갈 수 있는 길을 알고자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그곳으로 돌아 가는 길이 제시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념해서는 안됩니다. 지쳐서도 안됩니다. 싫증을 내서도 안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라디아 6:9)

예수께서는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요 14:9 참조)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거늘”이라고 하신 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모범은 증인이며, 생활은 훌륭한 말씀이며, 생활은 길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사業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 이심을 간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명을 지킴으로써 요한 3서에 기록된 바와 같은 큰 기쁨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간증드리는 바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요한 3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오늘모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스테이플리 형제는 눈을 빛내면서 어제 밤 내가 브리감 영 대학에서 미국인들에게 행한 연설에 대해 대답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오늘 피터슨 형제께서는 정직에 대해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사실들로 해서 저도 오늘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테이플리 형제님, 사실 어제의

그 이야기는 가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들리는 바로는 형제님과 태너 형제와 함께 골프를 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사람이 다가와서는 “비를 맞으면서 혼자서 골프를 치신 적이 있나요?”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저는 스테이플리 형제께서 이를 전에 비와 눈을 맞으면서까지도 골프를 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임을 마치고 눈발이 치는 아름다운 밖으로 나왔으며, 바로 그곳은 나무가지에 쌓였던 눈이 그의 머리 위로 쏟아졌던 지점이었는데, 나는 그곳에서 차를 타고 나무가지에 눈이 쌓여 휘어진 길을 따라 올라 갔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수가 꺾어졌으며, 우리 자녀가 자랄 때 이웃 집으로 건너

조건없는 사랑

매리온 디이 행크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

가 귀찮게하지 않도록 만든 담장도 넘어졌습니다. 나는 의미있을 뿐만 아니라 진실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오늘밤과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토의할 것만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혹은 앞으로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소한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안에 든 자녀이거나, 길을 잃은 자녀, 아직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자녀들 모두에게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든 사람과 우리에게 들어야 할 사람으로 아직 온전히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사람 및 우리가 우리에게 들기를 바라는 사람들에 관하여 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때 우리에게 있던 사람으로 멀리 떨어져 나간 사람에 관하여 예언자 엘마가 기록한 바를 나는 큰 기쁨으로 다시 읽었습니다. 엘마는 모사이야의 세 아들과, 자기의 아들 둘 그리고 개종한 두 사람을 데리고 조람인들을 가르치고자 떠났습니다. 조람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큰 잘못을 범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않아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또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1972년 9 월호



위해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게 하는 교회 의식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이와 같이 조람인들은 여러 가지로 주의 길을 어지럽게 하며, 엘마가 그의 형제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러 가게 되었느니라.”(엘마서 31:9-11)

이와같이 되었으므로 엘마는 오늘 저녁 위대한 주님의 종이 기도한 것처럼 훌륭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기도를 주께 올렸던 것입니다. “오 주여, 저희가 조람인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보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은 고귀하며, 그 대부분이 저희의 형제들이오니(이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형제의 부인이나 자녀로 되었거나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덧붙여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 저희 형제들을 다시 당신께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엘마서 31:34-35)

최근 나는 교회 역사 전문가인 조 크리스찬슨 형제에게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중 일부를 오늘 저녁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교회정사(제5권 320-21페이지)에 보면 타임즈 엔드 시즌스를 인용한 “‘청년 청년 상호 부조회’의 태동에 관하여 짧게 묘사한 것”이 있습니다. 주석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것은 시초의 형태였으나 상호부조회보다 청년에 대해 많은 것을 행했던 조직이었습니다.

“1843년 1월 하순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히버 시이 킴볼 장로의 집에 모여 모임을 갖고 있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 이 글을 기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줄 믿습니다.)이 자리에서 킴볼 장로는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혹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청년들에게 유혹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였으며 빌링 장로 집에서의 모임에서는 젊은이의 책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주일 동안 화르 형제의 교실에서 다른 모임이 있었는데 이 모임은 매우 성황을 이루었다. 킴볼 장로는 젊은이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도록 격려하고, 그리하여 ‘마음속에 지닌 희망에 이성을 부가’하도록 권고하였으며 현재의 교사와 지도자가 활동무대에서 사라지면 등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

추며, 선한 사람과 벗하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결하도록 권고하였다.”

예언자는 이어서 자기 집에서도 계속하여 모임을 가졌으며 기후가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성황을 이루었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이와같이 기록했습니다. “킴볼 장로는 회중들에게 젊은이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고 또한 젊은이들에게 부모들의 가르침에 잘 따르도록 격려했다……”

예언자는 이어서 나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형제에게도 똑같이 감명을 주리라 생각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는 청년들 앞에 설 때는 세상의 왕이나 귀족들 앞에 설 때 보다 더 당황하게 된다. 그것은 왕이나 귀족들이 범하는 죄악은 잘 알고 있으므로 그들에게는 무슨 말을 하여야겠는지 쉽게 알고 있으나 우리의 젊은이들은 누구도 그 같은 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여야겠는지 거의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청년들을 권고하여 가난한 사람을 구조하는 모임을 조직하도록 권고하면서 불쌍한 절름발이 영국인을 추천하여 주었다. 이 사람은 성도를 가운뎃 살고자 집을 짓고 싶어하여, 건축재료까지도 마련하여 두었으나 건축을 할 수가 없어 도움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를 위해 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모임을 조직하도록 충고하고 날씨만 풀리면 즉시 착수하도록 말하였다. 나는 청년들이 생활하는 동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 충고를 하면서 영광스러운 영생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제 청년들을 선도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셨으리라 봅니다. 그들의 노력도 우리와 같은 것이었으며, 청년들의 필요에 절감하여 발의된 것이었고, 지금과 같이 나이든 사람의 영을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정신으로 발의된 것이었습니다. 예언자께서 이같이 한 말씀은 내가 청년들 앞에 서 있을 때에도 같은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내게 큰 공감을 주었습니다. 나는 교사로서 수 년 동안 젊은이를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면서 그들의 장래를 숙고해 보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가장 즐겨 생각하던 그들의 장래에 대한 희망이 달성되는 것도 볼 수 있을 만한 정도는 살아 왔습니다. 희망을 달성하지는 못하더라도 달성을 이루

기 시작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내가 염려하는 바를 많은 청년들이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청년들은 위대하며 특기할 만한 세대입니다만, 우리의 청년이 현재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도 잘 인식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접, 혹은 전화로 혹은 접견을 통해서, 혹은 편지로 청년들과 관계를 맺으며 동행할 수 있다면 매우 흥미있는 경험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 나는 어느 대도시의 공항에서 여러분과 같은 지도자가 마중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아름다운 대학생 또래의 숙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숙녀는 부모님과 다른 사람의 뜻에 따르지 않고 집을 떠나 길가는 차에 편승하여 광란의 춤을 추는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이 축제에서 남자를 사귀어 집으로 오는 길에 역시 다니는 차를 편승해 보고자 하였으나 이를 금하는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마약 지참 및 복용죄로 5년 동안 수감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감독을 통해 상심하여 마지않던 어머니가 법조계에 있는 형제에게 부탁함으로써 이 숙녀는 가석방 되어 기록은 이미 작성되어 버렸지만 생활은 균형이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이 숙녀는 몇 가지 결심을 해야 되었습니다.

내 책상에는 늘 편지가 쌓입니다만 빈민 속에 피로워 도움을 구하는 소녀의 것도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제발 도와 주세요”라는 말이 세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사무실 전화도 한 시간이면 몇 번씩 울리며, 교회에서의 직분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느끼거나 그 직분으로 인해 교회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초라하게 된다고 느끼는 친구를 인도하고자 하는 상심한 청년이 도움을 호소하곤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랑하는 부모와 따뜻한 가족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부인을 취한 아들을 둔 신앙 깊은 아버지가 상심하면서 이를 전에 보낸 편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부모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노력하였던가를 읽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 가족은 선교사 가족이요, 신앙있는 가족이며, 혼연일체가 된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스스로 무가치한 것에 몰두하게 되어 실패와 오류로써 자신의 생활이 가족들의 훌륭함에 이르지 못하게 되

어 독자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는 아들이 남기고 간 편지와 자신의 편지를 함께 내게 보내고 모두 읽어 본 후 내가 판단과 충고를 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이 거대한 세대가 자신의 세대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필요와 문제점 및 우리가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을 주는 방법과 청년들이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을 관찰하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하여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경험한 바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험 한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내가 가장 좋게 생각하던 말 즉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며, 싫어하지도 말아라. 단지 이해만 하라”는 말과 같은 태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 근본적인 관찰은 내가 청년들과 함께 한 경험 및 직접 그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한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를 네 다섯 가지로 집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신앙을 필요로 합니다.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리와 계명과 복음의 원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와 확신 가운데 성

장을 하여야 하며, 예배하고 기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만, 의심이 생기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심각하게 도전되고 있는 시대에 청년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본연 그대로 용납되며,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인 가정을 필요로 하며, 비록 훌륭한 가정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 외에 이웃과, 친구와, 감독과, 형제와, 기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도움되는 영향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며,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자신이 범한 과오보다 스스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하며, 그러므로써 그들이 가치있고, 중요하며, 유용한 목제가 된다는 것과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딸이 신전에서 결혼하기 전 날 가족들과 함께 가졌던 인상깊은 가정의 밤을 마치기 위해 온 가족이 무릎을 꿇고 기도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날의 가족 모임에서 우리는 웃고, 울며 많은 추억을 회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여도 딸은 아버지를 탓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날 밤 나는 딸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나는 딸의 기도와 눈물과 기쁨 및 아름다움을 많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딸의 기도의 한 가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딸은 자신이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입

니다. 현대의 생활은 우리에게 회열이나 성공의 패감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날 밤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으며, 딸이 언급한 바를 실제로 믿고 이해하고 있다는데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미사려구나 습관이나 피박한 견해같은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측정해서는 안되었습니다.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하고, 청년들에게는 격려를 하여 주어야 하겠으나 우리가 보이는 사랑은 무조건 적이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을 중도에서 마친 청년이 남긴 편지에서 한 문장만 읽어 드리고자 합니다.

“내게는 희망이 없다. 유일한 꿈도 사라졌다. 나는 결코 만족할 만한 인간 관계를 가져 본 일이 없다. 나는 장래와 기타 많은 것을 두려워했다. 나는 열등감에 젖어 있었다. 무엇을 달성코자 하는 의욕, 인내 및 자신의 중요성을 거의 인식할 수도 없다. 그러니 가야 한다.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지난 여름에는 환락제도 복용하기 시작했다. 그 벌을 받고자 한다.”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청년들의 요구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용납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랑을 받게 되어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청년들은 다섯째 점을 필요로 합니다. 즉 실로 자신을 염려하여 주는 훌륭한 친구, 좋은 부모, 훌륭한 사람들의 모범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몇 주 전에 사촌의 장례식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깊이 느낀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대한 젊은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자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감독이 되었습니다만, 당시 사촌의 보좌였던 사람이 친척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모든 청소년에게는 생애 동안 이반프레임과 같은 사람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며 청년들이 되고자 하는대로 될 수 있도록 그들이 필요로 하는 바를 우리가 줄 수 있으며, 그들이 남에게 베풀고 싶어하는 바를 베풀어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바입니다. 아멘.



우 리들은 지난 주 어느 오후와 그 다음 날 종일 십이사도 지역 대표들과 함께 “교회는 모든 회원을 필요로 하나니 모두 서로 순화되기 위함이다”(교성 84:110 참조)라는 주제 하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에서 우리는 이제 도표로 만든 통계 숫자를 놓고 토의하였습니다. 도표는 지역 대표들께서 각각 돌아 가서 현재

교회에서 비활동적인 회원들을 다시 접촉하도록 회원들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도표로 된 통계 숫자 하나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353,000명의 벨기세텍 신권 소유자가 있는데 이 중 한 달에 성찬식과 신권회에 한 번 이상씩 참

석하여 자극을 받는 사람은 187,00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환언하면 한 번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활동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21세 이상의 아론 신권 소유자는 184,000명이 있는데 대부분이 아버지인 이들 중에는 17,000명만이 활동적이며 교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인으로 서 신권을 받지 않은 사람은 48,000

신권의 책임

해롤드 비이 리 대관장

명이나 되며, 회원이 아닌 남편이 117,480명이나 됩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자녀가 있는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신권을 받지 않은 형제와 비회원인 남편까지 계산해 넣는다면 대부분이 아버지인 거의 700,000명이나 되는 성인 남자 중 약 500,000명이나 비회원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자, 형제님들, 이렇게 많은 형제들을 어떤 종류의 활동이더라도 교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확고한 다짐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몇 년 전 구라파에 선교부장으로 있던 형제가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큰 방에서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이 방은 가운데 기둥이 무너져 지붕이 내려 앉은 방이었습니다. 선교부장이 선교사 한 사람에게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일어나 저 기둥을 들어 올리시요.”

“저, 나는 힘들어 못하겠습니다”하고 그 선교사는 대답했습니다.

“왜 못하겠소?”

“천장이 온통 이 기둥 위로 내려 앉았는데 어떻게 혼자 들 수 있겠습니까?”

이때 선교부장이 다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붕을 다른 사람들이 모두 들어올려 준다면 기둥을 세울 수 있겠소? “물론이죠, 그렇게 해 주신다면 혼자 서 할 수 있습니다”하고 선교사가 대답했습니다.

이에 선교부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형제님들, 여러분과 나는 마치 이 기둥과 같은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한 지옥은 결코 우리를 엄습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내려 누른 무게가 제거되지만 하면 우리의 대부분은 우리를 파괴하고자 하는 세력의

목표가 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신권 소유자와 가정을 지닌 아버지에게 책임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비활동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가족 단위로 활동적으로 하도록 하려면, 이 교회에 속한 사람만도 수십만 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도움이라도 주지 않는다면 신전에서도 인봉되지 못하고 말 것이며 따라서 내세에서도 가족으로서 함께 살지 못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활동이라는 것은 영적인 정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독께서는 가정 복음 교사와 정원회 지도자에게 명하여 자기 구역에 있는 회원 중 비활동적인 회원의 이름과 함께 이들에게 접근하며 활동에 참여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1972년 9월호



생각되는 제안을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독께서는 이와 같이 비활동적인 회원의 명단 및 접근 방법을 스테이크 부장에게 제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계 숫자에만 치중하기보다 개인에게 더욱 중점을 두고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인 노력과 평가를 해 왔으며 회원들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의 기회를 얼마나 잘 제공할 수 있었느냐는 점에서 우리의 사랑과 창의력을 시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제님께 오늘 이 자리에서와 같이 대화를 통해 이야기하도록 함으로써 이 중요한 과제에 여러분의 주의를 끌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문제의 여러 면을 언급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들은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중

내게 이렇게 이야기한 분도 있었읍니다. “주님의 일을 도울 때 개종을 시키기 위한 선교사업에만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과 전문적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선교부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될 것이겠지만 의사와 간호부와 농민 및 기타 여러 사람에게 선교 지역으로 나가는 선교사의 경우와 같이 자신의 비용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생활의 표준을 순화시키도록 돕는 활동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프로그램으

로부터 자신이 봉사할 수 있는 분야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원하는 사람, 활동적이어야 할 사람이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런 사람을 접촉하여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큰 자극과 힘을 주는 계획인 것입니다. 지도자 여러분, 독창력을 발휘하며, 모든 사람에게 교회는 모든 회원의 봉사를 각별히 필요로 한다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각자에게 책임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바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오늘 저녁에도 아마 에스 베니온 ①형제

께서 유타 주립 형무소에 갔을 때 경험하였던 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형무소에 갔을 때 일행 중 아마도 가장 대담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곳 복역수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게들, 내가 좀 묻고 싶은 것이 있네. 자네들 생애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잘못을 범하여 이같이 유타 주립 형무소에 수감되게 되었는가?” 오랜 동안의 침묵 끝에 그가 이같이 묻자 수감자 중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형무소에 들어 오게 된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오늘밤 이곳에 다소 안전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느낀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다 도와 주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혹은 어느 누구라도 아무도 자신을 염려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께 바

라는 바는 여러분이 그러한 회원을 만나서 할 수만 있다면 즉시 그들과 접촉하며 어떠한 형태로라도 활동을 하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몇해 전, 나는 프로보에서 부부들의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자매 한 분이 자기 남편이 교회에 활동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즐거움에 관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자매는 남편과 신권 의식을 행한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자매는 남편이 얼마나 비활동적이었으며,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신권도 승진할 수 없었다는 점과 후에 회원 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남편을 인도하여 결국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 신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게 되었으며 감독이 그가 신전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추천해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감격어린 저력을 이야기한 그 자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기 다섯 딸들이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인봉되기 위해 들어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를 한 영원한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같은 이야기와 간증을 말하면서 그 자매는 자기 앞에 남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자기 둘 외에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나는 딸들과 내가 얼마나 기쁘다는 것과 당신이 우리에게 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말할 길이 없어요. 아빠, 당신이 신권을 소유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빠가 열쇠를 가지고 영원한 가족으로의 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교회의 모든 비활동적인 아버지가 이 자매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신권 소유자 여러분, 제발 어두움이 오기 전에 아직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낮 동안 이러한 아버지들을 일깨워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어 우리가 이제 그같이 할 수 있도록 되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구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신권을 활용할 때 우리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오늘밤 테너 형제와 여러 형제들이 이야기한 바의 사명과 메시지를 여러분이 납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수행하며, 그 사명을 인식하고 그렇게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바입니다. 아멘. 圖

① 베니온, 아담 사뮤엘(1886—1958)은 1953년 4월 9일 사도로 임명되었음

유명한 탐험가 토르

노르웨이의 신화적인 탐험가 토르 하이엘달에 관하여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는 콘 티키, 아쿠 아쿠탄험으로서도 유명하게 되었으나 최근의 라 I 및 라 II 탐험으로 더욱 유명하게 되었다. 우리의 시대에 의미있는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해 말일성도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터뷰를 마련하고, 물론 청년들도 몇 사람 참석하도록 하였다.

문 : 선생님은 어떻게 그일을 하는데 흥미를 느끼셔서 그토록 세상에서 유명해지셨습니까?

하이엘달 박사—바다에 내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37년에 태평양의 마퀴사스 섬에 머무르는 동안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태평양으로 갔을 때 나는 물을 두려워하고, 수영할 줄도 모르며, 배나 항해에 관하여 조그만 지식도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재미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당시 나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동물학을 전공하면서 지리학과 인류학을 부전공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아내가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그곳으로 간 이유는 대륙에서 분리되어 생성된 것이 아니고, 화산에 의해 이루어진 이 섬에 어떻게 동물이 이주하여 살 수 있었겠는가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서 살고 있던 사람으로서 백인은 우리뿐이었으므로 그 해에 우리는 폴리네시아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하여서는 밀랍으로 들어가 음식을 수집하거나 카누를 타고 바다로 나가 낚시질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카누를 타고 바다에 나가게 되면 정말이지 바다라는 것이 책에서나 읽는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만은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사철, 밤낮으로

바람과 해류가 남미 쪽에서 불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간다면,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아시아 대륙 쪽으로 너무 나가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나가게 되면 노를 젓지 않아도 바람에 불려 쉽게 돌아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나는 숙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과학자들은 폴리네시아에는 10,000마일이나 떨어진 아시아에서 물을 건너 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2마일 밖으로만 나가도 돌아 오기가 힘이드는 이 섬에를 어떻게 아시아에서부터 조각배를 타고 올 수 있었겠는가를 의아해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메리카 대륙 쪽에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 해류와 바람을 타고 오게 되었다는 생각이 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론은 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나도 스승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폴리네시아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건너 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더우기 폴리네시아의 언어는 말레이지아 언어의 영향을 받은 점이 있어 아시아가 폴리네시아에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아메리카 대륙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나로서도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이 필리핀 근해에서 표류되어 일본 근해를 거쳐 미대륙의 서북 해안까지 흘러가고 그곳에서 다시 하와이로 내려오게 되었으리라는 가정을 세워 보았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 내게는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되었습니다. 폴리네시아는 여러면에서 찬란하였던 안데스 문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터 섬의 거대한 형상, 피라미드,

하이엘달과의 인터뷰

미이라, 트레피네이션, 이스터 섬에서 볼 수 있는 팻말에 쓴 상형 문자 등을 이곳에서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는 폴리네시아에는 페루에서 팻목으로 오는 것과 아시아에서 카누를 두개 붙여 미대륙 서북해안을 거쳐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람이 이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선생님의 이론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습니까?

하이엘달 박사—큰 논란과 논쟁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팻목을 타고는 누구도 이주할 수 없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증거를 제시하는 큰 책을 발간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남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이 가장 양질의 배로 사용하던 발사 ② 팻목과 갈대 배는 두 주일이면 물이 배어 가라앉아 버리게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 책을 읽어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나로서도 당시에 갈대 배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망상으로 밖에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주장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통나무 팻목으로써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나는 항해에 관하여 전혀 문외한이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알고 있었어도 나는 강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생각으로써 충분히 해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발사 팻목은 두 주일이면 영남 없이 가라앉게 되리라고 나에게 경고하였으며, 마른 발사 나무를 물탱크 속에 넣으니 실제로 두 주일이 못가서 물에 배어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디안들은 수액이 마르지 않은 나무를 직접 숲에서 잘라 썼습니다. 수액은 나무에 물이 침투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나는

놀웨이 사람 4명과 한 사람의 스웨덴 사람으로 팀을 이루어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즉시 팻목을 만들고 페루의 전설에 나오는 태양신의 이름을 따라 콘 티키로 명명하였습니다. 우리는 페루를 출발하여 101일만에 폴리네시아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한 후에도 이 팻목은 몇 개월 동안이나 그대로 물에 떠 있었으며 이것을 다시 놀웨이로 끌고 가서 박물관에 보관하기까지 6개월 동안은 그대로 오늘로 포트드에 떠 있었습니다.

문: 선생님의 콘 티키 시험은 과학자들의 견해를 바꾸어 놓았습니까? 하이엘달 박사—그것은 사조가 크게 바뀌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항해에 능숙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나의 항해술만 아니었다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지만 이것은 나로서는 가소로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콘 티키나 라 탐험은 전혀 항해를 모르는 사람들로 수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조류가 흐르는데 따라 흐르다 보니 그곳에 도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 나라를 다니며 나의 견해를 수호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미국, 소련, 독일, 영국 심지어는 내가 속한 스칸디나비아 제국에서도 같았습니다. 여러 해를 두고 나는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것은 항해로써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고 오직 육로로만 도달할 수 있는 나머지 대륙과는 바다로 고립되어 있는 속지라는 생각을 버리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여러 학술 모임과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부터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하였습니다. 나로서도 내 항해의 가능성에 관한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 아메리카 근해의 갈라파고스 섬에 대해 우선 고고학적 답사를 하고 이어서 남쪽으로 내려와 이스터

섬과 그 밖의 도서에 대해서도 같은 답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초기 미국 사람들이 이곳에 도착하였다는 고고학적, 생물학적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이론은 점차 힘을 얻게 되었고 1961년 하와이에서 3,000명의 과학자들이 모인 모임에서는 모든 학자가 태평양 도서 사람들과 그들의 문명에는 남 아메리카와 아시아가 각각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문: 왜 선생님께서는 라 탐험을 하시기 되었습니까? 라 탐험과 콘 티키와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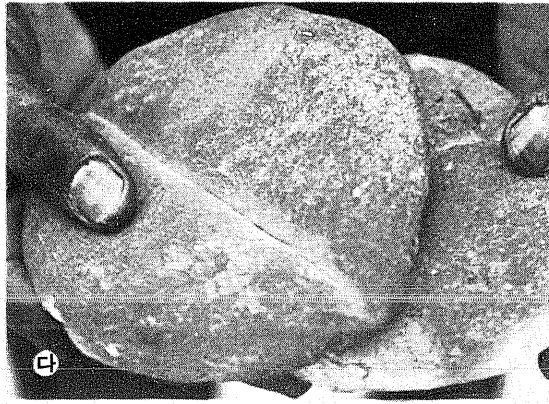
하이엘달 박사—네, 상호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콘 티키 탐험에서는 이론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라 탐험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에는 오직 항해가 가능한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완전히 만족할 수 없었던 유일한 것은 폴리네시아에는 아메리카 대륙의 반대쪽에 있는 소아시아와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바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라라고 하는 것은 폴리네시아에서 태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지만 이 말은 고대 이집트에서도 태양신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피라미드 건축, 태양 숭배, 미이라, 도로 건설, 기타 중남미 대륙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는 그 반대 대륙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약 5년 전 아메리카 인디안에 관한 전문 연구가 팀을 아르헨티나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나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나는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의 토착민과 태양밖의 다른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에 관한 찬반 양론을 토의할 학술 토론회를 준비하도록 부탁을 받았습니다. 접촉이 불가능하였으리라는 많은 이유가 제시되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갈대 배였습니

① 발사—엘데 아메리카에서 성장하는 수목으로 대단히 가벼운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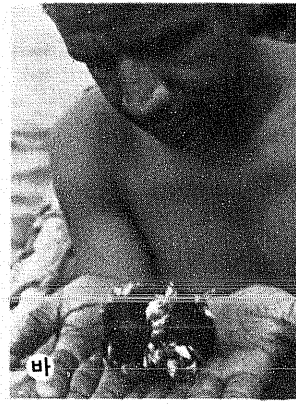
가 - 배를 조정할 수 없고 양쪽 노가 다시 부러지자 이태리 등산가 칼로 마루리가 닻을 내리고자하는 미국인 기술자 노만 베이커를 돕고있다. 나 - 우리는 라고를 만들면서 고분의 비정품과 고대 그림을 연구하였다. 다 - 카이로 박물관에서 배운 방법으로 이집트식 건방을 만들었다. 라 - 목적지에서 겨우 600마일을 앞두고 라고이 부서져 가라앉았다. 마 - 나는 이집트의 미이라 무덤에서 가장 오랜 갈대 배를 조사하였다. 바 - 매일 조사한 결과 바다가 오염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응고된 기름 덩어리가 가끔 물 표면에 떠올랐다. 사 - 파괴된 라의 선실에서 노만이 라디오 램과 연락을 취하고자 무전을 보내고 있다. 아 - 조상들이 과거에 행했던 것을 재연하고자 이집트인 조리 수리알이 어깨에 파파루스 구멍대를 두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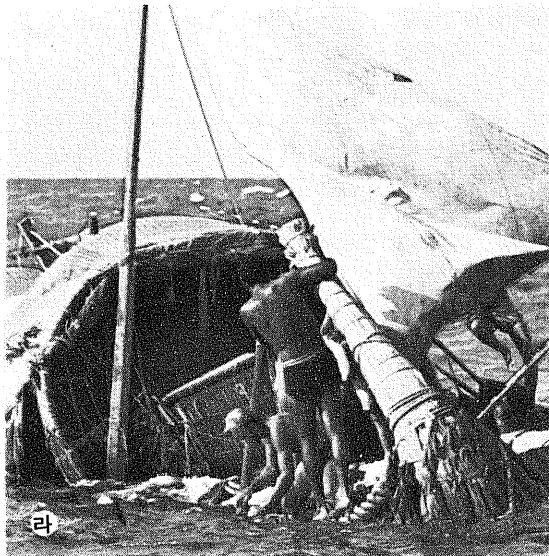
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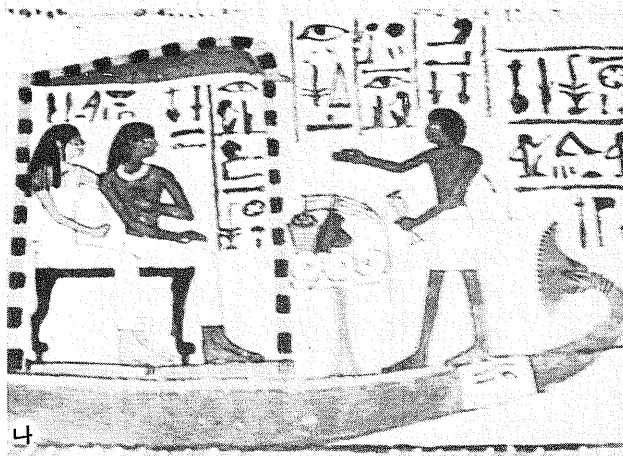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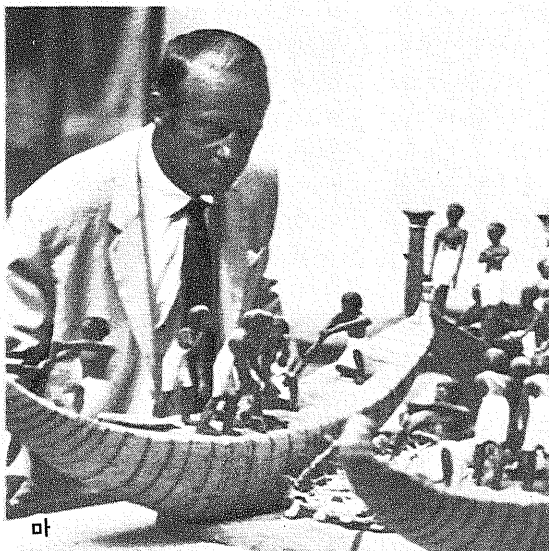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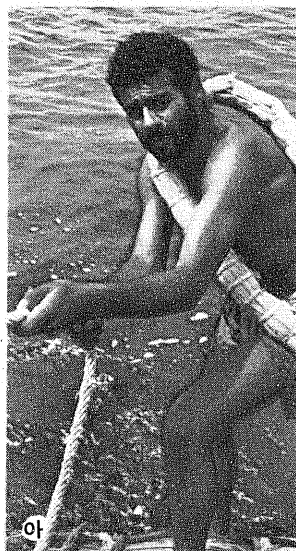
사



나



마



아

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고대 애굽인들이 나일 강에서 사용하였던 것과 같은 큰 갈대 배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티티카카 호수에서는 최근까지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집트에서 페루까지 왕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다른 족속사이에 우연히 있었던 동일한 발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갈대 배는 여행을 할 만큼 내구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두 주일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든 것이 발사 뿔목과 꼭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나는 갈대 배에 관해서는 과학이 틀리다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문 :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생님께서는 갈대 배로 배우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이델 박사—이때에 이르러서 나는 갈대 배는 이집트와 페루에만 있다고 하는 과학자들의 주장이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갈대 배가 발견될 당시 멕시코 전역에서도 사용되었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이스 도서 및 사르디니아 등 지중해 연안 지방에서는 물론 모로코 지방의 대서양 연안에서도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로코에서부터 중앙 아메리카에 이르는 긴 거리의 거친 방향이었었습니다. 따라서 갈대 배로 대양을 횡단할 수 있다면 아메리카와 지중해 연안의 문명과 갈대 배가 서로 유사한 것은 서로 다른 발전 과정에 나타난 유사한 점이라기 보다는 어떤 바탕이 있으리라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페루에서 2,000마일이 떨어진 이스터섬의 크레타 호수를 답사했을 때에도 우리들은 도서 사람들이 페루의 관개 시설을 한 늪지에서 갈대를 가져다 그 지방의 물가에 심었던 것이 그리스도 시대였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갈대는 그들이 티티카카 호수에서 만들어 사용하였던 것과 똑같은 배를 만들기 위해 그들이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갈대 배로 충분히 항해를 할 수 있다

는 주장을 나는 강력히 하는 바입니다.

또한 만일 우리가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높은 문명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보다 지력이 훨씬 앞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파오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연구 결과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갈대 배가 훌륭한 배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만일 그 배가 좋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수 백년, 아니 거의 천 년 가까이 갈대 배를 만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나는 과학자들로부터 그러한 배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카이로에 있는 파피루스 연구소에서도 자기들이 파피루스를 물탱크에 넣어 두었더니 두 주일만에 완전히 물을 흡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닷물에도 파피루스를 시험하였으나 나중에 꺼내어 보니 파피루스가 파피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큰 티키 시험으로써도 파피루스 재료와 배 재료사이에는 다른 점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철과 같습니다. 철을 물에 넣으면 가라 앉습니다만, 우리는 철로 켄 메리호도 만들었고 거대한 전함을 만들어도 물에 뜨지 않습니다?

문 : 갈대 배를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이델 박사—나는 벽화와 초기 이집트 고분 벽화에서 갈대 배를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나는 처음 내가 페루의 인디안들에게서 경험하였던 것과 같이 갈대 배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충고를 얻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나는 아프리카의 모로코에 있었으므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갈대 배를 사용하고 있는 아프리카 차드 호수의 토착민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들과 나는 라 I 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들은 고대 애굽 사람들의 갈대 배와는 다른 방식으로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양 끝을 뾰족하게 올려 대양 항해에 적

합하게 배를 만들었으나 차드 호수의 사람들은 파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갈대 배를 마치 코끼리 상아와 같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문 : 왜 라 I 는 실패작이었습니까? 갈대 배를 타시면서 배우신 점은 없으셨습니까?

하이델 박사—우리가 라 I 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어느 선원이라도 하고자 할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구할 수 있는 모든 충고와 차드 호숫가의 갈대 배를 만들어 준 사람들의 안내도 얻었으나 누구나가 할 수 있을 그러한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실수와 잘못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우리는 미대륙을 향하여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해하는 것을 막을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승선하여 항해를 순조롭게 하였으며 우리가 어디에 도착하게 될 것인가를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바도스를 600마일 앞두었을 때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와 일엽편주 우리 배를 마치 갈잎과 같이 좌우로 흔드는 바람에 한쪽을 묶은 끈이 끊어져 나가게 되었고 파피루스가 하나둘 흩어져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가 파피루스를 하나씩 끈으로 묶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카리브 해안에 도착할 때까지는 그런대로 할 수 있었으나 이곳에 오니 상어가 약 30마리 정도나 우리 주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친구가 거의 발을 상어에게 잘릴 정도로 되자 나는 흩어진 갈대를 묶는 것을 중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뒤로 아름답게 흩어지는 갈대를 바라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흩어진 갈대는 그 후에도 2개월 동안이나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나의 동료들은 모두 항해를 계속하고자 하였으며 지도자인 나로서도 항해를 충분히 계속할 만한 갈대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사람의 생명을 하나나 둘 희생하는 위험으로 결코 모험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과학적인 시험을 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모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습니까. 일행이 모두 항해를 계속하기를 바라면서도 중도에서 그만 두는 것은 참으로 참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지했습니다.

문: 선생님께서 라 I로 항해 시험을 결심하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선생님께서 라 I에 승선하고 제신 중이었습니까?

하이델달 박사—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견지에서 볼 때 라 I은 라 II보다 훌륭했습니다. 훨씬 훌륭했습니다. 라 I은 완전한 표류 항해로 시작하였었습니다. 항구를 떠나는 첫 날 우리는 노를 두 개 다 부러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동승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의 선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항해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사람은 바닷물을 먹어 보기 전에는 바닷물이 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목적했던 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파피루스 배가 두 주일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우리는 55일간이나 항해를 했으니까요. 우리는 책에 기록된 모든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나는 고대 사람들의 지식을 우리가 갖추 수만 있었다면 우리의 항해는 훨씬 쉬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 I로 우리가 항해한 거리는 대서양을 가장 가까운 횡단 거리로 따진다면 두 배나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 I의 결말에 따라 두 번째로 탐험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문: 과학자들의 라 I에 대한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이델달 박사—내가 라 II의 항해를 시도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아메리카 대륙과는 왕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거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남은 거리만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마지막 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었으므로 실제로 항해에 성공해 보이지 않고서는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갈대 배에 대

한 나의 호기심도 작용하여 다시 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연구를 해본 결과 나는 볼리비아의 티티카카 호수가에 사는 아이마라 인디안들이 중앙 아프리카의 토민들보다는 훨씬 더 고대 애굽 사람들의 갈대 배와 유사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배 끝을 뾰족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나는 다시 탐험을 시작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파피루스를 묶는 것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방식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마라 인디안 네 사람을 모로코로 데리고 갈대 배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만든 라 II는 길이가 40피트로서 라 I에 비하여 10피트나 짧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1970년 5월 17일에 항해를 시작하여 57일후에 3,270마일을 항해하고 바바도스섬의 브리지타운에 도착하였습니다. 라 I은 1969년 5월 25일에 항해를 시작하였으며 바바도스를 600마일 남겨두고 7월 18일에 항해를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문: 라 항해를 하기 위해 동료를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하이델달 박사—나는 언어·정치·종교 혹은 문화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다른 나라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 I의 항해에서 나는 여러 나라 사람을 직접 택하거나 친구를 통해 소개받았습니다. 라 II의 항해에서는 8 사람이 같이 항해하였는데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라 I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노르웨이 사람이었고, 우리가 함께 한 유일한 선원은 내가 몇년 전 아이리에서 만났던 미국인 기관사였으며 인류학자는 멕시코 사람이었습니다. 이태리 사람인 등산가도 있었고 의사는 소련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 스킨 다이버도 함께 하였습니다. 라 I에서는 아프리카 차드 호수가의 파피루스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 II에서는 차드 호수가의 토민대신 사업가와 일본인 사진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선원을 택함에 있어서 나는 인류의 갈등을

상징할 수 있는 흑인, 백인, 유대인, 모스렘인, 소련인 및 미국인을 깊이 생각하여 택했던 것입니다.

문: 항해를 통해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하이델달 박사—정말 즐거움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가장 즐거운 여행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의견 충돌도 있었습니다. 특히 언어면에서 그랬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는 배 이쪽에서 하는 말을 저쪽에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통할 수 있는 공통어를 발견하기 까지 우리는 영어, 불어, 이태리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겪은 문제라는 것은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본능적인 협력이 가능합니다. 나는 노르웨이 사람만으로 8명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여러 나라 사람으로 구성된 것이 문제가 적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아무리 좁고, 아무리 긴장이 강해도 사람이 함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정말 흥미있는 모험이었습니다. 우리가 항해를 마칠 때에는 우리는 모두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문: 우리는 모두 물문경을 배우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생님의 친구대륙 비교에 관한 견해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이델달 박사—그런데 나는 물론이 아닙니다. 더우기 내가 결론으로 얻게 된 바는 어떠한 종교적인 믿음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 분과 완전히 다른 경로를 통해 결론을 얻게 된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다른 경로를 거치는 것이기는 하나 내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신대륙에 있는 사람들과 구대륙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여러분의 그것과 근사해진다는 점입니다. 나의 연구의 결과 나는 지중해 사람들과 멕시코만 지역의 사람들 사이에는 모종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점점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圖]

영적인 반복에 관한 자기 테스트

존 에이 트베트네스

학자 중에도 역사는 반복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여러 면에서 매우 흥미있는 생각이지만, 경전에도 매우 같거나 비슷한 실례와 사건이 두번 혹은 세번씩 반복하여 일어난 일이 많다는 것을 생각할 때 더욱 흥미있음을 알게 된다.

아래에 언급된 일을 표준 성전에서 몇 가지나 기록된 사실을 알 수 있겠는지 알아 보도록 하자.

만일 각 문제에서 한 가지의 예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경전도 어느 정도 읽었다 할 수 있겠으며 주일학교에서는 매우 열심히 공부했다고 할 수 있겠다.

만일 열한 문제의 몇가지 답중 모두 합하여 다섯가지 이상을 답할 수 없다면 매일 경전을 읽는 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는지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모든 문제의 답을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씩 기록할 수 있다면, 축하해마지 않는다.

영적 반복에 관한 퀴즈 해답. 아래에 열거된 것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경전에는 있을 수 있다.

1 적은 음식이 많게 됨.

1. _____ 2. _____ 3. _____

2 사람들이 건널 수 있도록 물이 갈라짐.

1. _____ 2. _____ 3. _____

3 죽은 소년이 다시 삼.

1. _____ 2. _____ 3. _____

4 생명을 구하고자 자기 부인을 자매라고 말하는 사람.

1. _____ 2. _____ 3. _____

5 지구를 덮은 삼일 간의 어두움.

1. _____ 2. _____ 3. _____

6 예언자에게 나타난 빛기둥.

1. _____ 2. _____ 3. _____

7 엘리야와 모세가 열쇠를 전하고자 나타남.

1. _____ 2. _____ 3. _____

8 약속의 땅에 이르고자 대양을 건넌.

1. _____ 2. _____ 3. _____

9 가뭄을 피하여 애굽 땅으로 감.

1. _____ 2. _____ 3. _____

10 왕의 꿈을 해몽하도록 부탁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외국에서 재상이 됨.

1. _____ 2. _____ 3. _____

11 불신자가 시현과 실신으로 신자가 됨.

1. _____ 2. _____ 3. _____

11. '레위기' 16:1-17:16에 기록된 바와 같다. (레 16:1-17:16)
10. '마태복음' 23:23-24에 기록된 바와 같다. (마 23:23-24)
9. '마태복음' 12:9-10에 기록된 바와 같다. (마 12:9-10)
8. '마태복음' 7:8에 기록된 바와 같다. (마 7:8)
7. '마태복음' 17:1-4에 기록된 바와 같다. (마 17:1-4)
6. '마태복음' 9:15-17에 기록된 바와 같다. (마 9:15-17)
5. '마태복음' 10:21-23에 기록된 바와 같다. (마 10:21-23)
4. '마태복음' 12:10에 기록된 바와 같다. (마 12:10)
3. '마태복음' 17:17-24에 기록된 바와 같다. (마 17:17-24)
2. '마태복음' 13:34-35에 기록된 바와 같다. (마 13:34-35)
1. '마태복음' 9:10-17에 기록된 바와 같다. (마 9:10-17)

10. '마태복음' 23:23-24에 기록된 바와 같다. (마 23:23-24)

9. '마태복음' 12:9-10에 기록된 바와 같다. (마 12:9-10)

8. '마태복음' 7:8에 기록된 바와 같다. (마 7:8)

7. '마태복음' 17:1-4에 기록된 바와 같다. (마 17:1-4)

6. '마태복음' 9:15-17에 기록된 바와 같다. (마 9:15-17)

5. '마태복음' 10:21-23에 기록된 바와 같다. (마 10:21-23)

4. '마태복음' 12:10에 기록된 바와 같다. (마 1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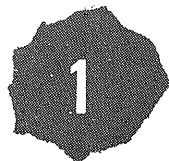
3. '마태복음' 17:17-24에 기록된 바와 같다. (마 17:17-24)

2. '마태복음' 13:34-35에 기록된 바와 같다. (마 13:34-35)

1. '마태복음' 9:10-17에 기록된 바와 같다. (마 9:10-17)

질의 응답

이곳에 소개되는 대답은 참고로 쓰여지는 것이며 교회의 교리가 아님을 밝히둔다.



“소녀들도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선교 사업이 소녀에게 좋으나 하는 점과 소녀들이 선교 사업에 적합한가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물론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태도와 봉사하려는 마음을 가진 소녀라면 선교 사업을 통해 커다란 이로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간증을 키울 수 있으며 인생의 방향을 확고하게 정할 수 있으며 인내심과 사랑을 키우며, 자신을 개발하고, 가정이나 부모나 가족들에게 감사하게 되며, 자기와 신전에 갈 뿐만 아니라, 해외 왕국에 갈 수 있는 남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타인에 대한 사심 없는 봉사에서 오는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소녀들이 선교 사업에 적합한가 하는 문제

입니다.

이 질문은 일반적으로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전형적인 여성 선교사란 정열적이고 젊고(갓스물이 넘은 정도)보통 장로보다도 두배 정도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이어야 합니다. 그녀는 보통 사회적인 압력 때문이 아니라 봉사하려는 열의 때문에 선교 사업에 임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선교사가 된 자매라면 잘못 생각했다고 하겠읍니다. 선교사의 바쁜 일정은 이상한 행위를 하거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게 마련입니다.

자매와 선교사라는 문제에 관해서 나는 나의 세 딸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레오라(양녀)는 북캐로라이나에 있는 버지니아 선교부에서 봉사했으며 로저는 워싱턴 선교부에서 금년에 임기를 마쳤으며 그레그는 현재 캘리포니아 중앙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들과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레오라 : “확실히 자매에게 더 친밀하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특히 남편이 집을 나가 있고 아내만이 집을 지키고 있는 군 주둔지에서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들 아내들은 남자 선교사를 집에 불러 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로저 : “우리 선교부 내의 자매 선교사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양심적이며 항상 즐거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레그 : “편지를 쓸 시간조차 없답니다. 항상 바쁘게 뛰어 다녀야 합니다. 나는 피로합니다. 왜냐구요? 우린 오늘 자매들과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공부를 하지요. 확실히 자매들은 활기가 있어요.”

그레그가 선교사로 봉사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교리와 성약 4편을 읽도록 제의했습니다. 즉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 원할진대 그 일에 부름을 받나니”(교성 4:3 참조)

욕망과 실천이라는 두 가지의 요건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선교사의 부름을 받게 해 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욕망에서 나옵니다. 만일 주를 섬기려는 욕망이 강하다면 선교사는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교성 4:2)라는 말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지 않다면 선교 사업에 자신의 모든 정성을 기울일 수가 없게 됩니다. 선교 사업을 행복하고 훌륭한 경험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마음을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세가 없다면 그 기간이란 지루하고 먼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힘을 다하여 낫질하는 자는 창고에 쌓아두는 자니, 파멸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육을 구원시키느니라.”(교성 4:4)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베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 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교성 18:15)

아서 에스 앤더슨
교사 자질 향상 위원회 위원

2

“주일날 공부를 하거나 오락을 즐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사람이라면(나도 가끔 해본 적이 있지만) 해결을 얻지 못하는 미궁 속에 빠지는 수가 흔히 있게 됩니다. 질문을 한 방법 때문에 그는 틀림 없이 옳지 못한 방향으로 대답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 그 질문은 “안식일에 공부를 하거나 노는 것은 잘못입니까?”라고 되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건전한 활동을 한다고 생각할 때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활동은 평일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느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질문을 했다면 그는 내가 믿는 것이 대답이 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내가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대학원 시절을 회



대답 와 너 형제

상해볼 때 나는 안식일에 경전을 읽거나 가난한 자들을 찾아 방문을 하거나 내가 맡은 직분을 이행하면서 주님의 영을 느꼈던 추억이 새삼 되살아납니다. 공부처럼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나 특별한 날에 주님의 영을 느끼지 못하게 한 것들은 다 이런 종류의 활동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공부를 하거나 오락을 즐기는 것은 잘못입니까?”라는 질문보다는 “공부나 오락은 안식일의 충만한 축복을 누릴 수 없게 하지 않습니까?”라고 묻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안식일의 축복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는 안식일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동료 학생과 같이 성적을 유지하려면 주일에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며, 대학원생은 특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질적인 연구 시간으로, 깨끗한 양심과 자신을 확립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단지 주일날 양적인 시간만을 더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질적인 면이 반드시 향상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일날에 공부를 해서 이로움을 얻고자 하는 학생은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 주신다는 생각을 잃게 됩니다. 만일 그가 안식일에 주님의 평화롭고 새로운 영을 느낀다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지 못했던 내적인 장애 즉 불안, 지연, 죄 의식등은 최소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십시오. (출 20:8) 성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 경우에는 학생이 주일을 주님께 바치고 일주일 내내 거룩함을 지니기 위해 본래는 나쁜 일이 아닌 이러한 활동을 포기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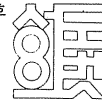
잘 가르치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다

리차드 엘 이반스

동 키호테 중에 보면 그 작중 인물인 산초 판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다. 또 그것이 내가 이해하는 거룩함의 전부다.” 참으로 간결하고 분명하지 않는가. “잘 가르치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끼쳐 주는 영향력에 관하여 우리가 활동하는 무대가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을 때와 정해져 있지 않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들에게서 무엇을 보며 또 느낄 것인가 하는 의문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이 언어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이 교실에서 주고 받는 강의만은 아닐 것이며 사리를 풀어 지적하는 것만도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시간이 되면 켜 놓기도 하고 끄기도 하는 그런 성격의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은 가르치는 이외의 시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용서하며 저주하는가를 남에게 낱알이 노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요소는 참으로 말이 없으면서도 명백합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를 보여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어느 국한된 사항이 모든 것과 연관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못된 생각입니다. 부모나 선생님이나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곧 본보기가 되는 것이며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건 정직하지 않건 관심을 가졌건 무관하건 정당하건 부당하건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본보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본보기이냐? 하는 것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을 걸으며 하고 있는 행동을 하며 생각하고 있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바꿔 말해서 저들이 바로 우리와 같이 된다면?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자기를 돌로 나눌 자도 없으며 이 시간에는 이것을 가르치고 다른 때에는 저것을 가르치겠노라고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교사는 교사로서 자기의 전공을 가르치는 이외에 바로 자기 자신을 가르치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실은 부모에게나 동반하는 사람들에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초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가르치는 자는 잘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을 바꿔 보면 잘 못 가르치는 사람은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엄숙한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모두가 안전함

1972년 9 월호



매리 프랏트 패리쉬 글

버지니아 사전트 그림

토미의 아버지는 가든 그로우브를 떠나 카운실 브라프스로 가서 정착지를 건설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유월 초였고 장마철이 지난 때였습니다. 브리감 영은 남자 성도들에게 다음에 도착할 성도들을 위하여 발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건물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유월 말까지 준비가 끝나 이들은 서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토미는 미국 군인 네명이 말을 타고 달려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곳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브리감 영은 집회를 소집하고 사람들에게 미 육군 대위인 제임스 알렌을 소개했습니다. 알렌 대위는 한 걸음 나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현재 멕시코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며, 여러분 중 오백 명을 뽑아 캘리포니아로 보내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가 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두가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브리감 영이 다시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곳으로 가길 원한다면(신앙개조 11조 참조) 우리는 대대병력을 편성해야 합니다. 나는 이러한 징병 모집에 참가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적의 손에 죽지는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나는 남은 가족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먹을 양식이 있는 한 그들을 굶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백 명

의 군인이 받는 봉급은 이 제곡에 있는 가족들에게 모두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에 참가한다는 것은 하나의 권리이며, 나는 여러분께서 기꺼이 응하시리라 믿습니다.” 알렌 대위가 떠난 후 다시 모임을 열었습니다. 이 모임이 끝난 후 일부 형제들은 지원을 하기 위하여 피스가로 갔습니다.

토미는 그의 아버지를 다 보았고 아버지 역시 그를 바라 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으나 토미는 아버지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몇분이 지난 후 아버지가 가까이 오셨습니다. 토미는 아버지도 지원자 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브리감 영이 피스와 가든 그로우브에 있는 물몬 대대 징병 사무소에 다녀왔을 때 파킨슨 씨와 그의 쌍둥이 아들이 함께 왔습니다. 파킨슨 자매는 가든 그로우브에서 세상을 떠났고 파킨슨 형제는 자녀와 함께 카운실 브라프스에 왔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두 자녀인 엘리사와 엘리야를 토미의 어머니가 맡아 주신다면 물몬대대에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미와 나는 아버지가 떠나시면 누가 마차를 몰까 하고 걱정을 했고, 또 베티는 항상 언니가 있었으면 했는데 잘 되었군요”하면서 토미의 어머니는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고 파킨슨 형제는 토미의 아버지를 따라 물몬 대대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7월 20일 피트 악대의 연주에 맞추어 물몬 대대는 리벤위스 요새를 향해 떠났고 캘리포니아를 향한 장거리의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토미가 멀리 떠나는 대대를 전송하면서 아버지가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토미야, 난 너를 혼자 두고 떠나는게 아니란다. 많은 형제들이 너를 도와 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항상 너와 함께 하실거야” 대대가 멀리 사라졌을 때 브리감 영이 마차 위에 올라 뒤에 남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토미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금년에는 더 이상 서부로 이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강 건너에 겨울 동안 목을 야영지를 세워야 합니다. 그곳에는 겨울 동안 가족에게 먹일 야생 풀이 충분히 있고 이러한 것들 이외에도 우리는 키가 큰 풀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인디안들도 우리가 그들의 땅에 머물고 나무나 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들이 추수를 할 때 도와야 하며 가능하다면 그들과 거

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밀어 닥치기 전에 야생풀을 거두어 들이고, 들판의 곡식을 추수하고, 집을 지으려면 모든 사람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강을 건너 가겠습니다. 작은 뗏목이 마차와 사람들을 실어 나를 것이며 3만여 두의 가족들이 헤엄쳐서 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어렵고 벅찬 일이 남아 있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므로 결코 실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토미와 엘리야는 뗏목에 두대의 마차를 실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황소에서 짐을 풀고 이것을 강가에 내려 놓았습니다. 엘리사와 베티와 어머니는 이 가족의 늙은 소인 올드벨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토미의 어머니는 두려웠습니다. “강 건너편까지는



너무 멀고, 물은 깊고 점었습니다. 강속에 있는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히 어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도와 줄거야.”

토미는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엄마, 브리감 영 형제님께서 모든 소년들도 자기의 책임을 다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우리도 서로 돕겠어요.” 하며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 주겠지.”

토미의 어머니는 각 어린 아이를 껴안아 주셨고 여자 애들을 데리고 뗏목으로 향했습니다.

토미와 엘리야는 짐승들을 달래면서 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각기 앞장서게 될 소에 올라 탔습니

다. 처음에는 황소가 놀란듯이 보였고 소년들은 그 등에 업혀 간다는 것이 어렵다고 느꼈지만 잠시 후에 이 소들은 서서히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떼들은 시종 마차를 실은 뗏목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다. 모든 것이 순조러웠으나 한 마리의 소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토미는 발로 그 소를 밀고는 달래는 음성으로 이야기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놀란 짐승들이 토미가 탄 소를 받아, 토미는 강에 떨어질뻔 하였습니다. 소 주인은 소의 뿔을 잡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토미는 아래 쪽을 쳐다 보았고 그 소가 아주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만일 그가 그 소의 뿔을 잡을 수만 있다면 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토미야! 지금이다!”라고 외쳤습니다.

토미는 자기가 타고 오던 황소의 뿔을 놓고, 놀라서 날뛰는 황소의 뿔을 잡고 그 등에 올라 탔습니다. 만일 그 순간을 놓쳤다면 기회는 잃었을 것입니다. 토미는 황소의 등에 완전히 탈 수 있었으며 그 소를 달랠 수 있었습니다. 곧 그들은 강을 건너 반대편에 닿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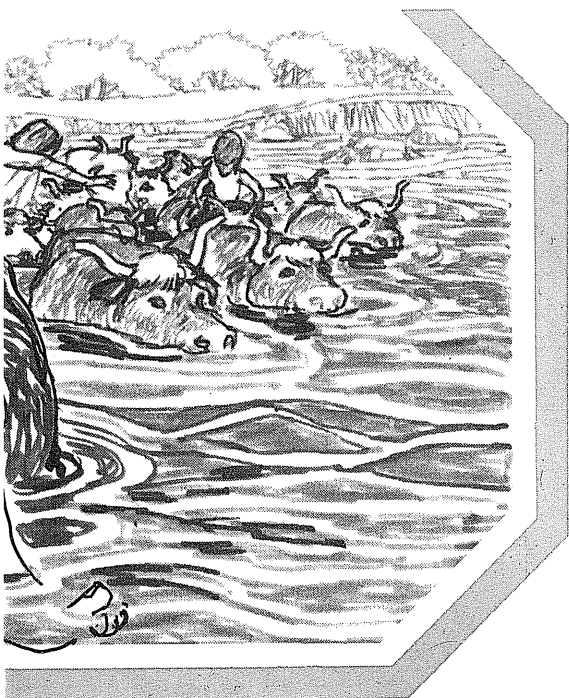
짐승들이 안전하게 물에서 나왔을 때 엘리야는 “토미야 정말로 위험했었지” 라고 말했습니다.

소 주인은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만일 토미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가족은 모두 큰 고생을 하게 되었을거야”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토미는 기뻐했으나 소 주인이나 엘리야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런 일을 감히 하지도 못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는 성공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물론 대대와 함께 떠나시면서 남긴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토미야 난 너를 혼자 두고 떠나는데 아니란다. 많은 형제들이 너를 도와 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항상 너와 함께 하실거야.”

아버지께서 떠난 후 처음으로 토미는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圖



마리아 물리나는 조용히 앉아 수놓은 손수건을 무릎에 놓고 만지작거리고 있다. 몇 달 동안은 오늘, 9월 18일을 기다려 온 것이다. 그런데 오늘 같이 초라한 날은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옥색으로 맞추어 입은 새 옷은 춤추고 놀기에 꼭 어울렸다. 옥색 면 스카트는 어머니가 정성껏 천을 모아 주름을 셋이나 잡아서 바느질하여 주신 것이었다. 끝에 털이 달린 삼각 스카프는 할머니가 사용하시던 것이었다. 마리아가 신은 짧은 굽의 구두는 길

거나 춤을 출 때에는 삐익 소리를 내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나무 그늘이 있는 정자는 이미 부산한 친구와 이웃 사람들의 웃음과 크게 외치는 소리로 혼잡하였다. 유칼립투스 가지의 향기가 고기 굽는 좋은 냄새와 어울려 풍겨왔다. 마리아에게는 사람들이 모두 앉은 식탁에 두 줄로 놓인 구운 고기는 “독립 기념일 경축”이라는 메시지를 온 칠레 사람들에게 전하는 두꺼운 편지 봉투로만 보였다.

마리아는 고개를 들어 부모 뒤편에 오빠 루초가 친구들과 함께 벽 옆에 서 있는 것을 찾고 있었다. 오

로비사 후다도 글
리즈 던햄 그림

승리자

문학

1972년 9월호



빠는 11살된 사람으로서는 으젓한 목동이였다. 꼭끼는 겹점 바지와 보레로 상의에 코피웨이라는 칠레 국화를 주위에 수놓은 붉고, 희고, 푸른 만포를 두르고 있었다. 구두는 잘 닦아서 거울 같이 되었고, 은방울이 얹힌 구두에 달려있다. 루초는 툄툄히 모자 채양을 잡으면서 구두를 뚫어져라 내려다 보았다. 지난 이틀 동안 같이 얼굴에 냉혹한 표정이 가지지 않았다. 따라서 마리아는 그 이상 그를 쳐다볼 수가 없었다.

마리아는 그에게 달려 가서 “그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이야. 누구나 잘못은 있을 수 있잖아”라고 말하고 싶었다.

마리아는 그가 화가 나 있는 이유를 알고 있다. 이틀 전에 마리아는 오빠의 자전거를 뒤 뜰에서 꺼내 탄 일이 있었다. 루초가 집에 있기만 했었다면 그는 허락하였으리라는 것을 마리아는 거의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옷을 만들 실을 사러 가는 시간을 단 일분도 지체할 수 없었다.

마리아는 온종일 어머니와 함께 옷을 만드는 일에 전념했다. 이 옷을 입고 마리아는 어린이 무용 대회에 나가려던 참이었다. 루초와 같이 춤을 추기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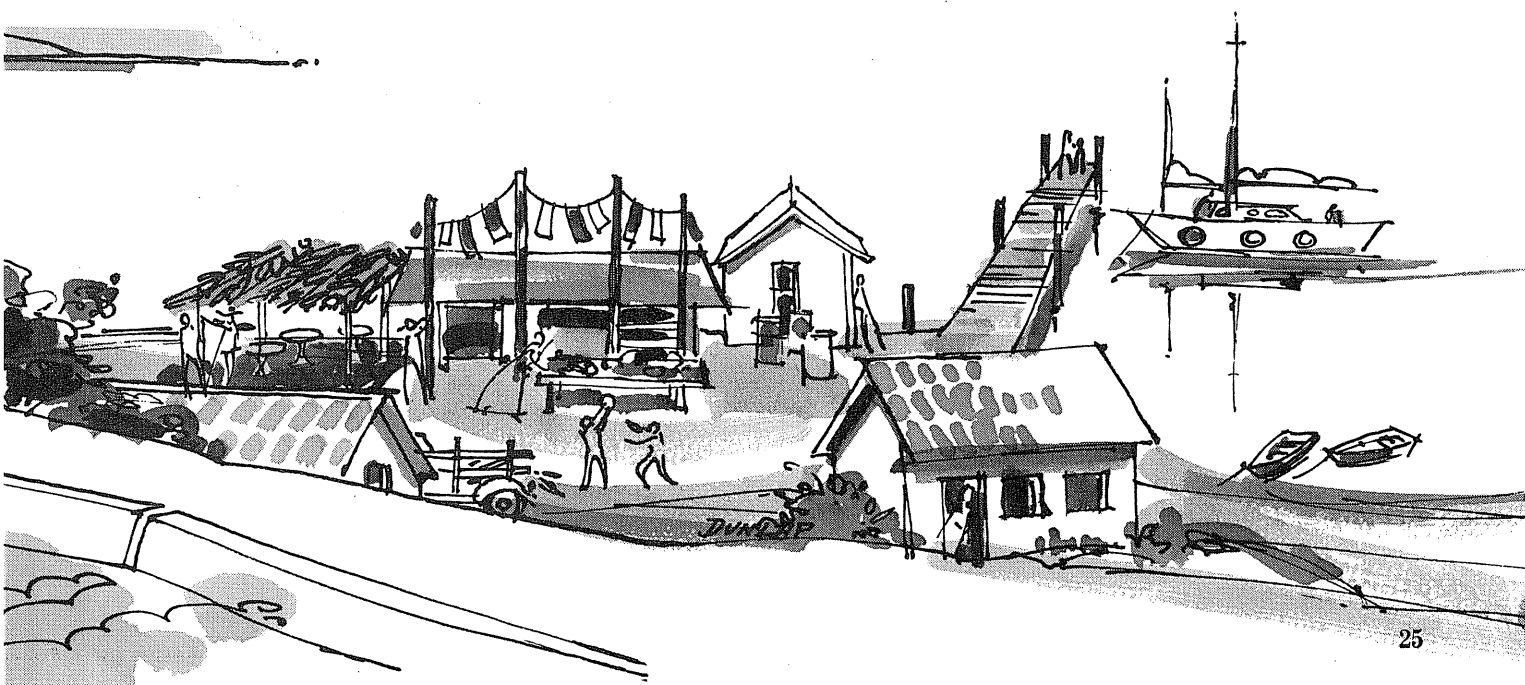
였는데, 그렇게 되면 우승할 것은 거의 결정적이였다. 학교에서도 일등을 한 일이 있지 않았었는가? 더우기 선생님께서도 무용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을 본 일이 없다고 말하기까지 하지 않았는가?

“상금을 받으면 너는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니?”하고 루초가 그날 아침에 물었다. 마리아는 미리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슴치 않고 “세놀라 베라스케즈상점 진열장에 있는 바느질 그릇을 살테야”하고 말했다. “나는 자전거에 쓸 바구니를 사야지”하고 루초도 분명히 말했다.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면서 재봉틀에서 아이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었다. “독립 기념일이라는 것은 춤추고 상을 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기억해야 하는 날이야” “그것은 학교에서 모두 배웠어요”하고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그래. 이 나라의 아버지인 베르나도 오히진스와 카페라스 및 마누엘 로드리게스에 관한 것 말이야” 하며 루초가 참견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의견이 같지 않았지만 의견이 다른 것보다는 독립을 얻도록 같이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일하였다는 것도 너희는



알겠구나. 내게는 그 점이 9월 18일이 갖는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란다.”

마리아는 어머니가 이야기한 것을 생각하면서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길 왼쪽에는 정자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곳은 칠레 연안의 푸른 태평양이 보이는 지대였다. 마리아의 눈은 멀리 내려다 보이는 풍경에 매혹되었다.

그릇에는 음식을 차려 놓고 팔기도 하는 조그만 정자가 여러 개 있었다. 갑자기 마리아의 눈은 여러 정자 중 가장 우뚝 솟은 것에 멈추었다. 그 곳에서 무용 대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아마 루초는 지금쯤 주위의 언덕에서 가져 온 강한 향내가 나는 유칼립투스 나무 줄기로 지붕을 덮는 일을 돕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바로 이때 사고가 난 것이었다. 마리아는 트럭이 불쑥 튀어나온 사잇길과 정자를 지으려고 파놓은 곳을 지나가면서 나무 가지를 떨어뜨린 것을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와지끈— 뭐가 시멘트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나더니 마리아는 자전거에서 몸이 공중으로 뜨다가 유칼립투스 가지가 쌓인 곳으로 떨어지면서 굵히는 상처를 입었고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루초의 자전거는 그렇지가 못했다. 앞바퀴가 구부러지고, 바퀴의 살이 구부러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했다.

루초는 처음부터 이 광경을 본 모양이었다. 마리아가 땅에서 일어나니 벌써 루초는 그리로 달려 오고 있었던 것이다.

“다치지 않았니?” 근심스레 물었다. 말을 마친 루초는 자기 자전거를 보더니 근심스러운 표정이 분노로 변했다.

“나는 상점에 빨리 가려는 생각뿐이어서……”하면서 마리아는 변명을 하였다.

“이제 다시는 내 물건에 손대지 마!” 그는 자전거를 세워 놓았다. 자전거를 끌면서 언덕으로 향하는 그는 거의 울상이 되었다.

“절대로 만지지 마?”

정말 루초가 화내는 것은 당연하다. 이틀 동안 그

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리아가 무용대회에서 받게 될 상금을 모두 루초에게 주어 자전거를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았다. 마리아는 스페인식 춤의 복잡한 움직임과 비판적인 눈으로 보는 모든 칠레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동작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 스텝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무용을 살리는 것은 무용가의 스타일이며 정열이고 성실성이다.



마리아는 눈을 들어 저 건너 오빠를 보았다. 아직 까지도 화난 표정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무용하는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었다. 마리아는 여러 가지 생각에 너무나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알리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네 팀 중의 첫 팀은 이미 무대에 나가 있었다.

밴드가 음악을 하고 군중들이 박자에 맞추어 손벽을 치자 마리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였다. 나무 옆으로 된 벽이며, 이웃과 무대가 눈 앞에 어른거렸다. 가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마리아는 무의식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을 헤치고 정자 뒤쪽의 공터로 뛰어 나왔다.

일단 밖으로 나오니 찬 바람이 얼굴에 불어오고 머리를 휘날렸다. 음식 차려 놓은 정자와 폐지 우리와 닭장을 지나 이틀 전 자전거 사고가 있었던 장소에 자신이 와 있었다.

마리아는 돌 위에 쪼그리고 앉았다. 눈물이 자꾸 흘러내려 흰 스카프를 적시고 있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합성 소리를 들을 수는 있었으나 무용 대회에는 이제 관심도 없었다. 지금 머리에 차 있는 생각은 루초와 어떻게 하면 다정히 지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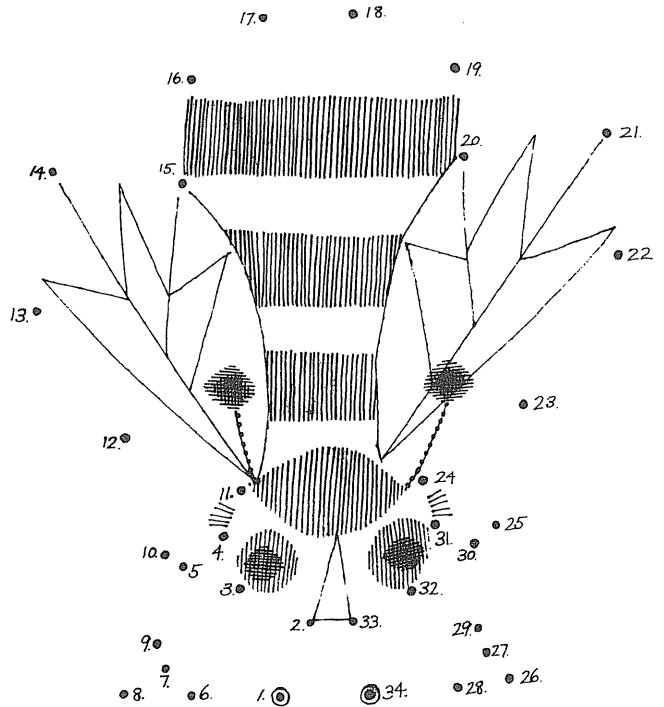
마리아는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는 것도 듣지 못했다. 어깨에 손이 없히는 것을 느끼며 뒤를 돌아보니 오빠의 빛나는 두 눈과 마주쳤다.

“어머니가 맞았어. 우리는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문제를 잊어야 할 때가 있어.” 루초는 손을 뻗쳐 마리아를 일으켰다. “내가 이기자는 뜻에서 그러는 것은 아니야” 하고 말하면서 미소로 누이 동생을 내려다 보았다. 이렇게 말한 그는 정자로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마리아도 급히 뒤따랐다. 루초를 오빠며 친구로 다시 갖게 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자전거와 바느질 바구니보다 중요한 것이다. 만일 무용을 미소짓는 것으로만 심사한다면 루초와 자기가 일등일 것이라고 마리아는 생각하였다. 

점 잇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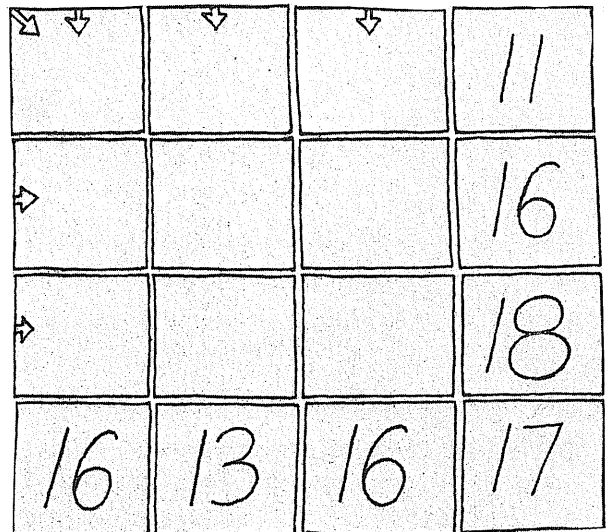
필리스 루흐



숫자 넣기

밀트 햄머

화살표 방향으로 빈 칸에 숫자를 넣어서 그 합한 숫자가 이미 나타내진 숫자와 일치하게 된다.



해답
첫째줄 4, 1, 6
둘째줄 9, 5, 2
셋째줄 3, 7, 8
넷째줄

엘마의 아들들

마벨 존스 개봇 옮김
제리 하스톤 그림



아들 엘마는 불신앙자였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아버지 엘마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겸손하거나 이웃을 돕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침례를 받고 참된 교회에 속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아들 엘마는 언변이 뛰어나서 감언이설로 많은 사람들을 꼬여 교회를 멀리 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모사이야의 네 아들과 친했는데, 이들도 역시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엘마가 이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들은 나쁜 일을 저지르며 다녔고 이런 일로 기쁨을 찾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엘마와 그의 네 친구를 사랑하셨으나 그들이 행한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날 이들이 몰래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끌어내려고 계획했을 때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구름 속에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 왔고 그들이 서 있는 땅이 진동할 정도의 소리로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당황하고 놀라서 땅에 쓰러졌고 그 천사의 말을 이해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시 천사는 그들을 부르며 “엘마야 일어나서 내 말을 들으라! 왜 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엘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의 기도와 네가 진리를 알게 해 달라고 간곡히 기도한 네 부친의 기도를 들으셨단다. 이런 목적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너에게 확신시키고 그의 종의 기도가 그들의 신앙에 따라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너

에게 알리러 왔단다. 이제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정하겠느냐? 나는 네가 생활 태도를 고치고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지 않도록 다짐받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이 자리에 보내졌단다.”

엘마와 그의 친구들은 또 다시 땅에 쓰러졌으며, 엘마는 너무도 놀랐기 때문에 귀가 먹었고 입을 열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힘이 빠졌기 때문에 손조차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친구가 그를 부축하여서 집ե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집에 가서 그를 아버지 앞에 뉘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후 아버지 엘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주님께서 그의 아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행하신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백성들과 제사들은 주님께서 엘마의 아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셔서 그가 말할 수 있게 입을 열어 주시고, 사지에 힘을 주셔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함과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 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틀 낮과 밤이 지난 후 엘마는 말을 시작하였고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엘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구세주를 거부하였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죄를 회개하였고 암흑에서 광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모든 자를 기억하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후로부터 엘마와 모사이야의 네 아들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었고 참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모사이야서 27:8-37 참조)

브리감 영 과 사회에 대한 그의 책임

아서 알 바셋트

어떤 젊은이들은 변함없는 인생에 만족을 느끼는가 하면 또 어떤 젊은이들은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면 하는 미래상을 어렴풋이라도 예견하여 미래에 대한 꿈을 실현할 때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부단한 노력을 계속합니다.

브리감 영이야말로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인 상상력이 풍부한 젊

은이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왕국 건설은 꿈과 같은 환상이 아니었으며 실제의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삶의 길ियो, 사회 건설을 위한 새로운 표본이였습니다. 그는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예 20:9)라고 한 예레미아의 말처럼 그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여 실제의 일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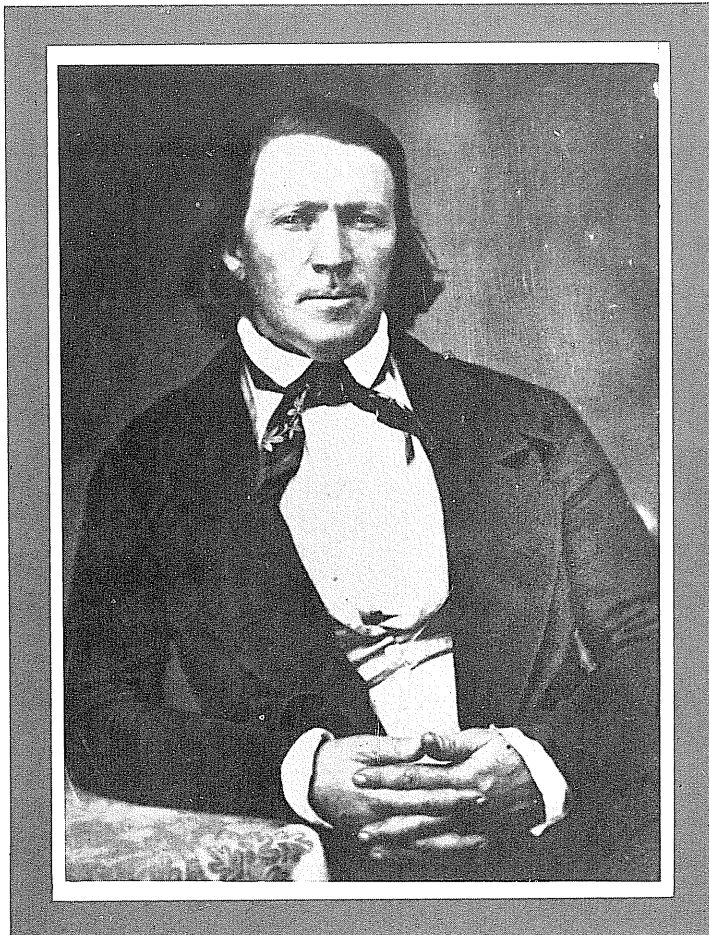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알게 되었

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은 심정이였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시작했던 사업[하나님 왕국 건설]을 인자를 맞이할 모든 준비를 갖출 때까지 계속할 권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일성도의 사업이며,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꿈은 그의 목적, 인생 및 궁극적으로는 그의 영원한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브리감 영처럼 아직 젊은 시절에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그에게 있어서 희생이란 조금도 지나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원대한 목표를 추구한 그는 뉴욕 주 멘돈의 목수에서 대 쏘트레이크의 제국을 건설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1832년 눈이 내리는 초 봄에 침례를 받은 브리감 영은 즉시 확인을 받고 등에 젖은 옷이 마르기도 전에 2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집에서 장로로 성임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그가 예언자 요셉을 최초로 만난 그 해에 브리감 영은 다시 눈 길을 헤치며 캐나다에 있는 그의 친구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12월 추운 겨울에 브리감 영과 그의 형제인 조셉은 캐나다 북부에 있는 킹스톤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 여



1850년도 솔트 레이크 시에서 촬영한 브리감 영의 초기 은판 사진.

행은 두 장로가 진흙 바닥에 무릎까지 쌓인 눈길을 헤치며 250마일의 장거리를 걷게 하였습니다. 눈이 덮힌 진흙 위를 걸어본 사람만이 이 두 사람이 겪은 고초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간 거리 중에서 6마일은 얼음 위였는데 이 얼음이 너무나

얇고 위험해서 그들의 발 밑에서 부서지거나 구두에 물이 찬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선교사는 이 지역에서 2개월간 봉사했고 45명을 침례했습니다. 선교 사업이 자신에게 부적당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러한 일이 브리감 영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할 것입니다. 브리감은 언어에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면 두통이 먼저 나고 말하려던 것을 잊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브리감 영은 다른 선교부에서 또한 해를 보내고 마침내 커틀랜드에 정착했는데, 여기서 그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선교 사업 기간 동안 그의 노력으로 다시 이십 여명이 교회에 들어 오게 되었으며, 그는 그들을 커틀랜드로 이끌었는데, 이는 마치 그가 후일에 많은 성도들을 서부로 이끈 것과도 흡사했습니다. 오하이오 주 북부에 있는 커틀랜드에 정착한 브리감 영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거하는 시온에 관해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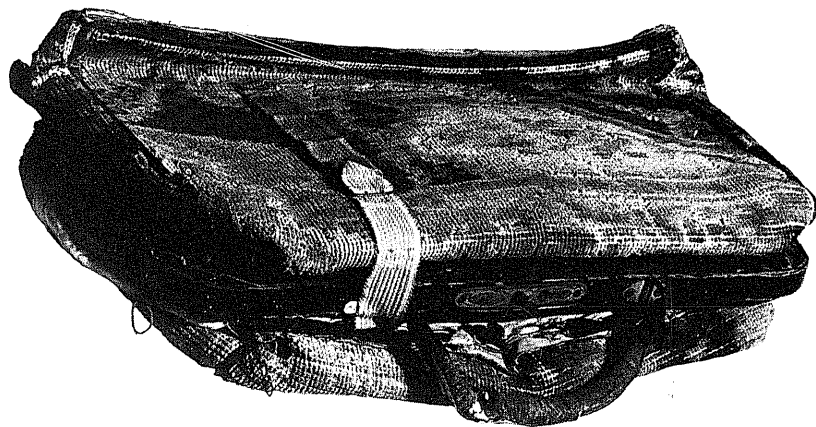
1834년 예언자 요셉이 시온의 캠프를 조직할 때 브리감은 시온의 대업을 위한 또 다른 놀라운 기여를 하였습니다. 미조리 주에 있는 성도들이 폭도들로부터 그들의 집을 빼앗기고 무참히 박해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커틀랜드까지 전해졌습니다. 커틀랜드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원의 호소가 날라들어 왔습니다.

요셉과 205명의 성도들은 즉시 이 구원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무력은 무력으로 대항해야 할 도리밖엔 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 행군을 감행했던 사람들은 수천 마일 떨어진 그곳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브리감 영은 평생토록 장거리 도보 여행에 익숙해 있었으나 이 때에 행한 행군처럼 길고 고난이 따른 적은 일찌기 없었습니다. 영 대판장은 후일에 그가 선교사로 봉사할 때 매달 발에 피가 맺힐 정도로 걸었으나 이 선교 사업의 시절은 초 여름 뜨겁게 내려 쬐는 태양아래서 계속되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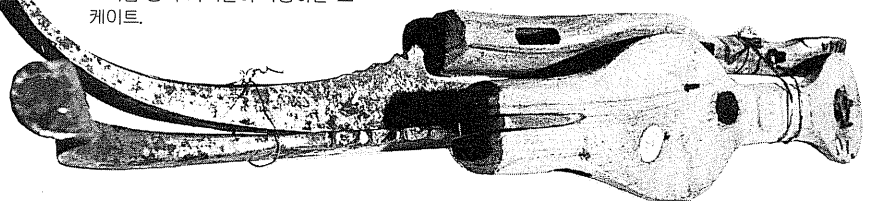
1. 시온의 캠프—1834년 5월 7일 예언자 요셉이 계시를 통해 조직한 군대로 그가 총사령관이 되었으며 예하에는 중대장이 이끄는 각 중대가 있었다.

브리감 영의 사진 중 최초의 것으로 알려진 것이나 확실성은 없다.



브리감 영이 처음으로 선교 사업을 떠날 때 가지고 간 가방.

브리감 영의 자녀들이 사용하던 스키테.



브리감 영이 쓰던 이 안경은 평상시에 사용했으며, 독서를 할 때는 다른 렌즈를 덧붙여 사용했다.

행군처럼 큰 고통이 따르지는 않았다고 술회했습니다.

행군을 계속함에 따라 피로가 쌓이게 되었고 인내심과 지구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마침내 무서운 콜레라가 밀어닥쳐 수없는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 행군이 있기 2년 전에 심한 설사와 구토와 경련을 일으키며 심한 오한과 열을 내고 얼굴을 푸르게 해서 결국 생명을 빼앗아 가는 무서운 콜레라가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명이 죽어 넘어졌고 심지어 한 시간 안에도 도끼로 찍어낸 나무 가지처럼 수없는 생명이 사라져 가버렸습니다. 시온 캠프에 속해 있던 일부 사람은 도망을 치려고까지 시도했으나 브리감 영은 묵묵히 이곳에 머물렀으며, 죽은 자를 매장하고 병든 자를 간호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 사람으로 요셉 스미스는 그의 이름을 들고 있습니다.

시온 캠프가 이러한 경험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브리감 영은 1835년에 처음으로 조직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부름을 통해 브리감 영은 많은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으며 증가되는 책임을 느꼈으나 인생의 목표는 항상 변함이 없었습니다. 인자가 오실 날을 대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할 때까지 그는 예언자 요셉이 시작한 일을 끊임 없이 계속하였습니다.

브리감 영이 사도 시절에 보여준 두 가지의 업적을 통해 우리는 그가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일이 모두 1839년에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의 일은 2월 중에 발생했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며, 토마스 비 마쉬의 배도와 쿠르키드 리버의 전투에서 데이비드 더블류 패튼이 살해당하므로써 그가 맡게 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서의 직분때문에 그는 교회의 모든

일을 직접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당면한 문제는 미조리 주의 성도들을 일리노이 주로 이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동을 위해 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궁핍했으며, 다만 목숨만을 부지하려는 조급한 마음만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브리감 영은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취할 바가 못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동정과 관심을 갖지 못한다면 사회는 결코 이들을 용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의가 소집되었으며 결의문이 채택되었는데, 이에 서명을 한 사람은 사정이 어려운 모든 사람을 완전히 이주시키기 전에는 결코 먼저 그곳을 떠나지 않을 것을 서약했던 것입니다. 브리감 영과 그의 가족은 히버 씨 킴블의 가족을 이끌고 (당시 킴블은 미조리에 남음) 추운 2월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리노이 주를 향해 물론 이주사상 가장 놀랄만한 행군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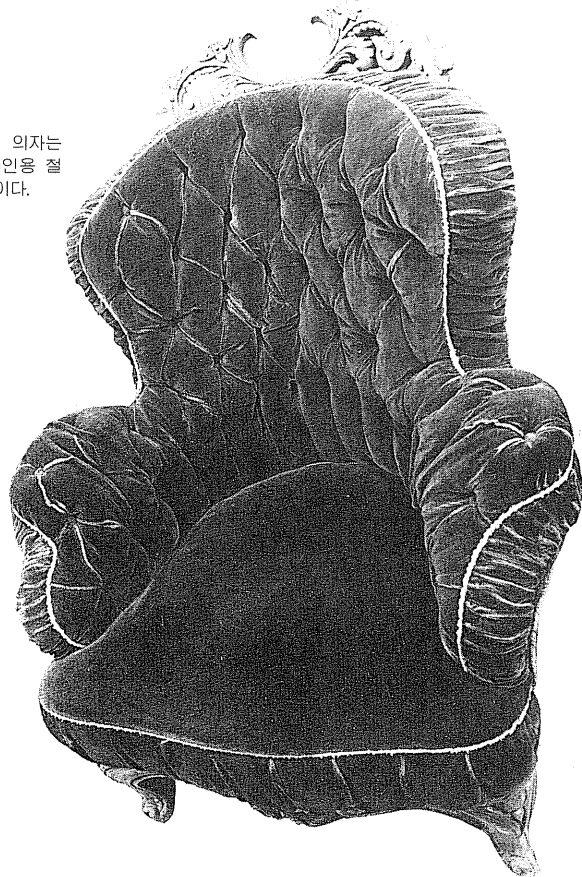
얼어 붙은 미조리 평야를 20마일쯤

왔을 때 브리감은 그의 아내와 가족들이 쉴 임시 거처를 만들어 놓고는 다시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데리고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 왔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는 실제로 다른 사람의 세배를 더 달린 셈이 되었습니다. 이 긴 여행이 끝났을 때 일리노이 주 쿼키에서는 인상적인 모임이 열렸습니다. 쿼키에 있는 성도들은 아직도 50가구가 파웨스트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들의 이주를 돕기 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자, 코우트, 구두 등을 팔아서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빵을 떼어서 성찬을 들었습니다. 모임이 끝났을 때 50불이 모금되었으며 이들 가족을 데려 오겠다고 여러 팀이 나섰습니다. 지원자 중에는 하우스필의 대량 학살 때 남편과 자식을 잃은 와펜 스미스 부인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조직한 팀으로 이 사랑에 넘치는 사명을 수행해 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기타 이와 비슷한

이 붉은 벨벳 의자는 브리감 영의 개인용 철도차에 있던 것이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브리감 영은 시온의 백성들은 사랑으로 함께 뭉칠 수 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 기초를 둔 그리스도적인 사회를 건설할 능력이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해에 일어났던 또 다른 특기할 만한 사항은 1839년 9월부터 1840년

2월까지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 그가 보여준 놀랄 만한 희생과 영국에서의 선교 사업입니다.

그가 뉴욕을 향해 떠난 여행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십이사도가 특별한 사명을 받고 떠나야 할 시기가 왔으나 브리감 영은 다른 많은 성도들처럼 마라리아로 신음하고 있었습니 다. 온몸이 쑤시는 고통을 무릅쓰고 그는 아이오와 주 몬트로우즈의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신은 코우트도 없었으므로 그는 병상의 이불을 입시 덧옷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모두 중병으로 앓아 누웠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앓아 누웠으나 10개월 밖에 안된 어린 아기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미시시피 강을 165야드 앞에 두고 브리감 영은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차를 몰고 지나가던 이웃 사람이 그를 보고 마차에 끌어 올렸습니다. 강가에서 그를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강 건너까지 브리감 영을 실어다 이스라엘인 바로라는 사람에게 인계해 주었고 그가 그를 말에 태워 나부에 있던 히버 씨 킴볼의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기진해 쓰러졌으며 사흘 동안 일어나 질 못했습니다.

결국 떠나야 할 날이 다가왔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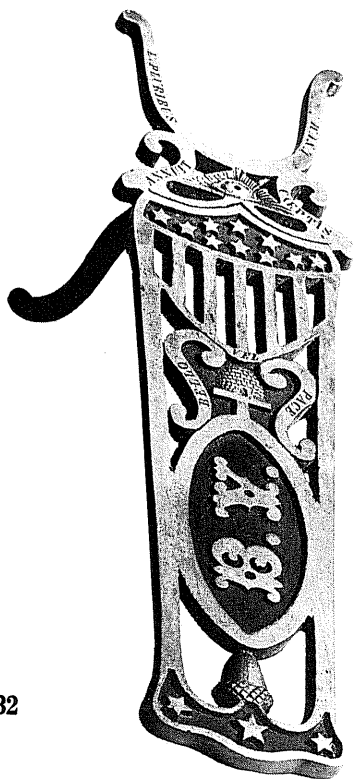
선교사들은 하루 빨리 동부로 가야만 했습니다. 영 대관장은 마차의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한 병으로 고통을 해본 사람이라면 마차를 타고 일리노이 주나 인디애나 주의 시골 길을 달린다는 것이 어떠한 고역인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4개월만에 브리감 영은 뉴욕 시에 도착했으며 그 동안에 겪은 고초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부트크린에서 뱃목을 타고 강을 건너는 동안 그는 다시 기운을 잃고 쓰러졌으며 그의 왼쪽 어깨를 다쳤습니다. 두 형제가 그를 꼭 붙잡았고 팔리 프렛이 그의 손을 잡고 어깨의 뼈를 맞추었습니다. 이 고통을 참으면서 영 장로는 오른 손으로 빠진 어깨를 제자리에 맞추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이 그를 불가로 데려 갔을 때 영 대관장은 의식을 잃고 며칠 동안 혼자서는 옷을 입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낙담을 했거나 그러한 지경에 이르기 전에 이미 포기를 했겠지만 브리감 영은 하나님 왕국 건설이 실현될 때까지 조금도 낙오됨이 없었습니다. 그는 영국으로 가는 동안 계속 멀미를 하였으나 끝까지 견디어냈습니다. 그가 영국에 도착했을 때는 너무도 몸이 야위었기 때문에 그의 사촌인 윌라드 리차즈는 그를 알아 보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홀륭한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그는 고향에 돌아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희생을 모두 받아 주셨습니다. 나부에 돌아 오자 마자 영장로는 다음과 같은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20개의 박공이 달린 라이온 하우스는 1855년 브리감 영의 저택으로 지어졌다. 그는 1877년 이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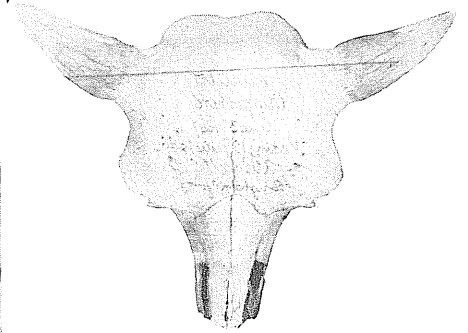
브리감 영을 위해 만든 장화벗는 기구는 유타주에서 최초로 철을 녹여서 만든 것임.



1850년대 대관장의 모습



대관장이 서명을 하고 두개골에 적은 메시지.



1857년 메코 케년으로 이주해 오는 몰몬 이주민의 모습.

“사랑하는 형제 브리감 영이여, 진실로 이같이 주께서 그대에게 이르노라. 나의 종 브리감이여, 이제는 지난 날과 같이 네 가족을 떠나 있기를 네게 요구하지 아니하노니, 네 헌물을 받아 들였음이니라.”

“나는 네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여행하는 동안 힘써 일하며 여러 가지 고난 겪었음을 보아 왔노라.”

“그러므로 나는 네게 명하노니, 나의 말을 널리 전파하며 이제부터는 이후 언제까지나 영원히 네 가족을 특별히 돌볼지이다. 아멘. (교리와 성약 126:1~3)

그러한 것은 브리감 영이 예언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그는 지상의 시온인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외에 그가 한 모든 일도 역시 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행했던 것입니다. 그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의 목적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후일에 그는 이러한 준비 때문에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데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권고하는 주님의 사자로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헌신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예언자로서 그는 후일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머리 속에 시온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천사나 에녹이나 그의 무리가 와서 시온을 건설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시온을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는 곡식을 가꾸고, 집을 지으며, 울타리를 세워 농장을 만들고, 포도밭이나 과수원을 만들어 우리 몸을 편안하고 건강하게 할 모든 것을 생산해내며, 이러한 방법으로 지상에 시온을 건설하고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이를 깨끗이 보호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뜻깊게 예견한 말씀임.)”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모든 것에 훌륭한 영향을 주도록 합시다. 우리가 가꾸는 밭이나, 우리가 짓는 집이나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에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합시다. 만일 우리가 세상적인 부패와 인연을 끊고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시온을 건설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결국 지상을 정복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지상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시나 엉덩퀴 대신에 인간의 음식으로 훌륭하고 유용한 식물이나 아름다운 꽃들이 그땅에서 솟아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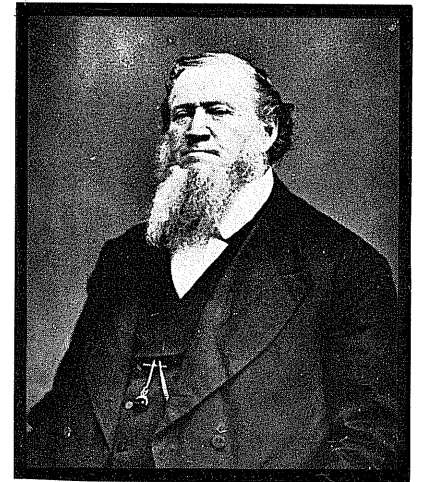
한 마디로 말해서 브리감 영이 계획한 공동 사회 건설 계획은 단순한 도시나 과수원의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거할 수 있는 장소이며 지상에 있는 소천국의 건설이었습니다. 그는 교육의 중요성을 느꼈고 서반구에서의 물몬의 시온이 세계 모든 백성의 모범 전시장이 될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이 모범을 배우러 오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볼때 우리가 그의 꿈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꿈은 아직도 다 성취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대에 “브리감 영의 꿈을 지닌 그와 같은 타입의 젊은이가 교회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우리 지부 혹은 와드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圖

부리감 영의 약력

나이	나이	나이
6월1일	나이	
1801년		버몬트주 워팅감에서 출생
1815년	14	어머니 별세. 자신이 목수일로 생계를 유지함.
1824년	23	미리암 워크스와 결혼, 1832년 아내 세상을떠남.
1832년	31	침례를 받고 장로로 성임됨.
1834년	33	매리 앤 엔겔과 결혼
1835년	34	사도로 성임됨
1839~41	38~40	영국에서 선교사업을 함.
1844년	43	요셉스미스의 순교,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교회를 인도함.
1846~47년	45~46	솔트 레이크로 대 이동을 지휘함
1847년	46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됨
1850년	49	유타지역 지사가 됨
1853년	52	솔트 레이크 신전의 초석을 놓음.
1857~58년	56~57	유타전쟁
1867년	66년	태버나클이 완성됨
1877년	76	서부에서 최초의 신전인 세인트 조오지 신전헌납
8월29일		
1877년	76	서거

브리감 영의 변화된 모습들.



브리감 영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이 책상은 그와 그의 보좌들이 종종 사용하였다.



너희는.... 말짚지니라



1972년 9월호

1972년 9월호

더블루 셀 장르 (집에 사는 것)

몇년 전에 나는 어느 훌륭한 사업가가 흥미있게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목적을 성취하려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취해야 할 단계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해서는 안될 일을 분명히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누가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미리 방지하고 제거해야 할 부정직한 관습이나 부당한 절차가 대두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계획하는 데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부정과 불성실의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해서는 안될 요인들을 깨끗이 제거해 버린다면 그 다음은 해야 할 일들에 자기의 시간과 정력을 쏟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중요한 사항을 확고부동하게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 환자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지 못해서 고민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 환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런 것도 같읍니다만 아닌 것도 같군요.”

이 환자처럼 확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확고부동하지 못한 사람은 의외로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최근에 도덕 문제로 조언을 청해온 사람에게 “다음에 또 유혹이 닥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 유혹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를 후회하면서 고통을 당해도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는 데 다시 그의 마음이 악에 물들었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확실히 우리는 도덕, 정직, 완전함, 근면, 종교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에 심각한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를 막기 위해서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은 절차가 주어진 가장 좋은 예는 주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을 지상의 강국으로 이끌려고 노력했던 시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풀려 나온지 3

개월 만에 그들은 시내산에서 야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으며, 이것은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도 해서는 안될 것들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도 살인자나 거짓말장이나 도적이거나 무신론자나 간음자나 안식일을 어기는 자의 무리로는 위대한 국가를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니 직장을 잃게 된 어느 회사의 기술자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 기술자는 사장을 찾아가서 왜 자기가 해고를 당했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기술자는 곧 “저는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장은 다시 대답했습니다. “물론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말을 기억은 합니다만 당신은 우리에게 말할 때 책상을 칠 정도로 강조하지는

않았지요.”

어떤 생각에 따르는 강조성의 정도는 그 생각 자체 보다도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라디오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던 어느 교회 목사가 자기는 십계명이 너무 시대에 뒤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십계명의 말투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는 “명하노라”나 “...말찌니라”등과 같은 강력한 어조 대신에 주님께서 “권고합니다.” “제언합니다.”등과 같은 부드러운 말을 썼어야 했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말은 약한 의미를 지닌 불투명한 태도를 낳아 주며 결국은 과오를 범하게 해 줍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무절제한 방임 상태가 심각한 악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계명에 관해서는 아무런 재량권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불 구름에 싸여서 산으로 내려 오셨습니다. 그는 산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무서워 떨만큼 큰 권능을 지니고 내려 오셨습니다. 그때 그 성스러운 산에는 빛과 천둥이 따랐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기본적인 율법을 주셨고 그들이 해서는 안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베게 있게 말찌니라.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3.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들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네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찌니라.
7. 간음하지 말찌니라.
8. 도적질하지 말찌니라.
9.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

10.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찌니라. (출 20 : 3~4, 7~8, 12~17)

이 열 가지의 말씀은 30초 이내에도 읽을 수 있는 것이나, 이 말씀을 성실히 따른다면 이 지구가 하나님의 낙원으로 급속히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중요한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네가 십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외울 수가 있다면 너에게 5달러를 주겠다.” 그의 친구는 이 제의를 받아 들였고 다음과 같이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자려고 합니다. 제 몸을 편히 쉬게 해 주십시오. 깨기 전에 죽게 된다면 저를 당신께서 데려가 주십시오.” 그의 친구는 “자 여기 5달러 있다. 나는 네가 그렇게 잘 하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단다.”라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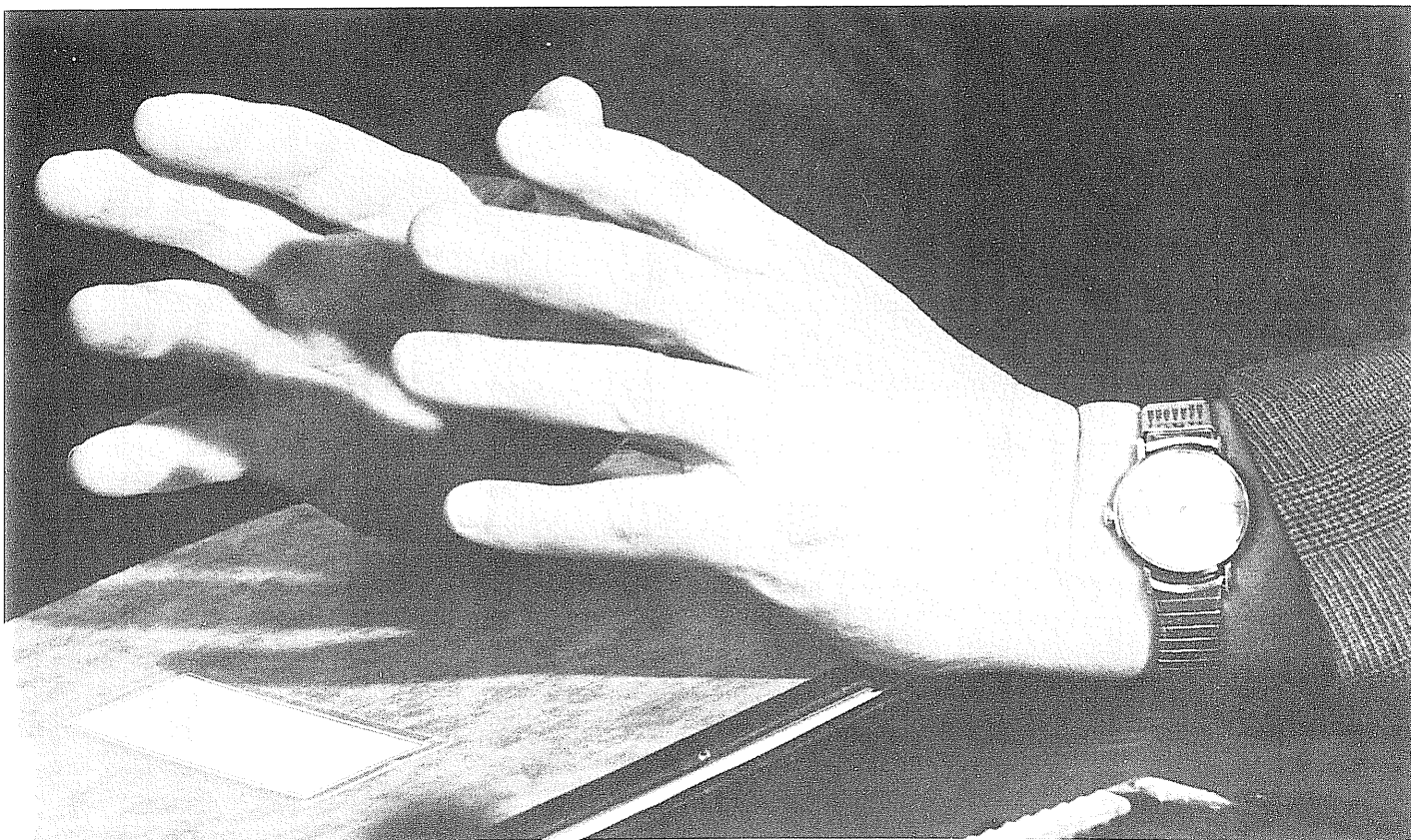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십계명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에 18 : 4.)는 에스겔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말틴 루터’가 말한 바와 같이 “한 가지 악은 열 가지 미덕을 망친다”는 점으로 볼 때 악이란 우리 모두가 멀리 해야 할 속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행 업자는 자기의 채무를 같은 양의 다른 재산으로 갚아버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여러 가지의 미덕도 한 가지의 악으로 그만 무효가 되어버리는 중대한 인생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중대한 책임을 맡길 세 명의 후보자들에 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며 그의 업무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지만 정직하지가 못합니다.” 둘째 사람에게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평을 했습니다. “그

는 매우 정직하고 유능하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째번 사람에게 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유능하고 잘 생겼지만 부도덕한 점이 있습니다.” 칭찬할만한 점도 매우 많았으나 부정적인 면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부도덕한 면을 취소할 수 없고, 능력으로 부정직을 만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 해 미국에서는 50달러 이상의 금품을 절취한 죄목으로 약 4백만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777000명이 자동차 절도범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을 그들이 만든 새로운 도덕율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수많은 무신론자들을 볼 수 있으며 15분마다 자살이나 살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들이 수정한 십계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이 방해를 하지 않는다면 살인을 하지 말며, 만일 너희가 파트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간음을 하지 말며, 더 좋은 생각이 없다면 나외에 다른 신들을 베게 있게 말찌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마저 저버리고 있습니다.

어느 젊은 여성이 잘 알려진 잡지를 통해서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옳지 못한가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무어라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고 하겠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전혀 무관심한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주신 이 위대한 율법을 재강조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59편에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며,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 (교성 59 : 6) 우리는 십계명을 어기는 것과 비슷한 일을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도덕관과 실천력의 결핍

1. 말틴 루터-(1483~1546) 독일의 승려 신교의 창시자.



으로 가증할 만한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불순종과 게으름은 우리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짐을 남겨 줍니다.

십계명이 주어질 때 나는 시내산에 있지는 않았으나 그곳에 있었던 사람 못지 않게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것도 압니다. 나는 시내산에 있었던 사람 들처럼 신성을 모독하고 도적질하며, 시기하며, 거짓증거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그와 비슷한 짓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

가 저주를 받았느니라”(말 3:8~9) 십일조를 바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십일조를 내지 않을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우리가 대대로 내려오는 유업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해의 왕국으로 이끄는 곧고 협착한 경계선을 따라 강력히 보호해 주는 길을 닦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해 주는 길은 노랑색의 선을 그어야 하며 여행이 불허된 막다른 길에는 정거의 표시를 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소한 죄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며 그 앞에서는 어떤 죄도 행해서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옳지 못한 자세를 갖거나 나쁜 모범을 보이거나 나쁜 일을 저지를 때는 하나님의 목적을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면서 죄인이나 겉쟁이나 악한 자처럼 행동을 한다면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고 하신 위대한 주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득권이나 예지나 성약이나 맡은 책임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증인이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내 아버지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중대한 가족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모두 그의 대표자들입니다. 그것은 그의 자녀들의 삶에 완전함과 인격과 영생을 확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자주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주님의 영의 힘으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계명을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책상을 치면서 강조하는 태도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서는 안될 것들을 제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보다 굳게 결정지어 줍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㉔

눈을 하늘로 돌리자

1972년 9월호



존 에이치 반덴버그 감독
(편리 감독단)

눈

기에 보면 주께서는 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찌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찌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욥기 38 : 3-7)

이 경전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인 우리에게 지구를 창조하여 주셔서 인류가 거하도록 계획하고 계심을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가 몹시 기뻐하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제시될 때 우리는 전폭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원히 발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윌리암 워즈워즈¹⁾가 “불멸의 접근에 관한 노래를 지을 때 그는 생명의 신비에 대하여 깊은 통찰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출생은 수면이요 망각인 것,

우리와 함께 일어나는 영은 우리 생명의 별,

멀리부터 와서는 모든 곳에 그 자리를 정하나니 ;

모든 것을 잊는 것은 아니며,
완전히 벌거 벗는 것도 아니니,

밀려오는 영광의 구름으로 우리가 왔노니,

우리의 가정인 하나님으로부터 왔노라.

하늘은 어린 우리의 주위에 깔려있고,

육사의 구름이 달리기 시작하나니, 성장하는 소년은

그 빛과 빛의 발상지를 알고, 그는 기쁨으로 그것을 보노라.

매일 동쪽에서부터 멀어지는 젊은이는,

여행을 해야 하나, 그래도 자연의 승려,

찬란한 통찰력으로

그 길이 절절되노라.

종말에 그것이 걸힘을 사람이 알게 되고,

평일의 빛 속으로 사라지면

대지가 소유의 기쁨으로 가득차 선천적 친절과 마치

어머니의 마음씨와 같은 것을 지니고자 열망하노니

바람직한 목적이 있네.

자녀들과 남편을

간호원처럼 부드러이 대하여

전에 거하던 왕국의 대절을

그 영광을 잊게 하네.

헨리 워드 비처²⁾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에게 생명을 갖겠는지 묻지 않으신다. 사람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방법이다. 이 말에 부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자녀에게 강제하지는 일

이 없으므로 우리가 지구에 올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상 생활을 어떻게 영위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는 주위의 환경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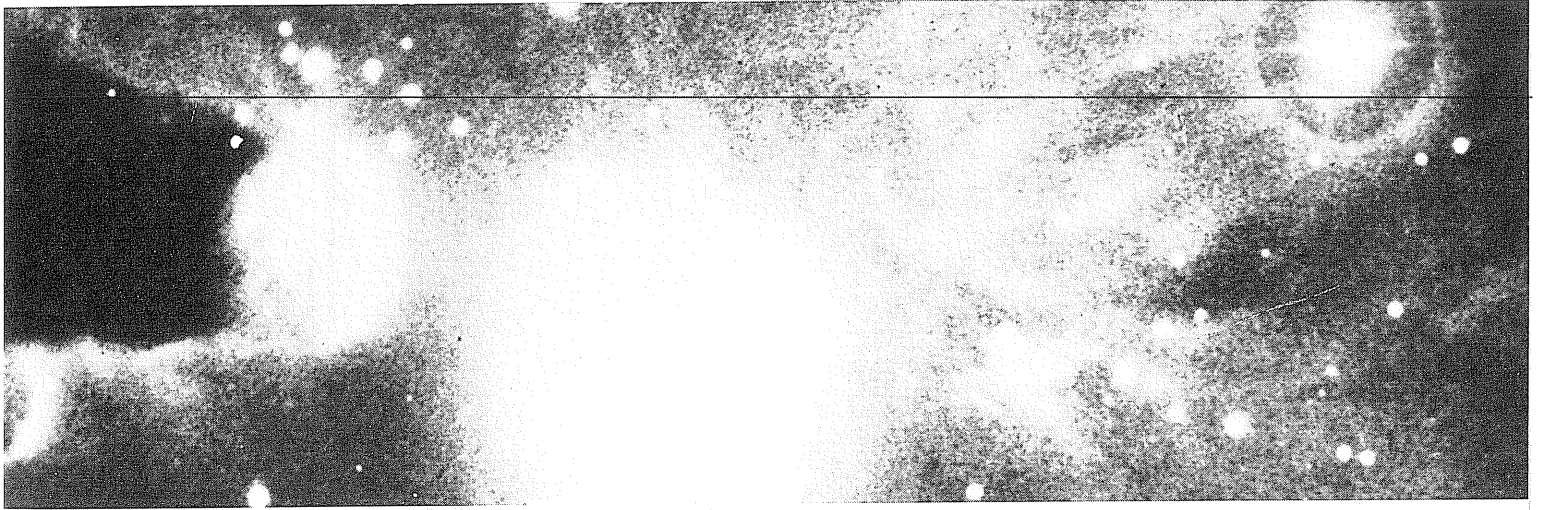
우리는 지구의 여러 환경 요소에는 물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반응을 보이며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예언자로부터 무신론자에 이르기까지 한결 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은 어떻게 출생하였는가? 우리는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쇠잔하고 말 것인가? 우리가 생애의 목표로 세운 것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허송하고 말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일단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선과 악 가운데서 투쟁하는 지상 생활을 본연 그대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선과 악같은 상반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믿도록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사상은 온과 냉, 빛과 암흑, 인력과 진공 및 기타 많은 이러한 상반된 것이 존재하는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는 것과, 보는 것, 그리고 마음 속에 느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성령으로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 마음 속에 지닌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취사선택할 수 있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성령의 감화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것입니다.

② 비처 · 헨리워드(1813—1887) : 미국인, 신교 성직자, 편집자주

① 윌리암 워즈워즈(1770—1850) : 영국 시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닌다고 하는 것은 충만하고 행복한 생활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생명은 허송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는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사람이 땅을 내려다 보면 어떻게하여 무신론자가 되는지 알 수 있겠다. 그러나 그가 하늘을 쳐다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 링컨이 이같은 말을 할 때 그가 무엇을 뜻하였는지를 나는 안다고 믿는 바입니다.

몇년 전에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소풍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을 받고 응한 일이 있었읍니다. 이날 소풍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말을 타고 아이다호 주의 어느 호수가로 놀러 갔는데 재미있으면서도 무서운 몇 시간을 즐겼읍니다. 밤도 깊어서 피워 놓은 모닥불도 꺼지고 모든 사람이 야숙을 할 자리를 정하자 나도 드러누워 하늘을 쳐다보았읍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으나 이같이 아름다운 밤은 처음 경험하였읍니다. 하늘은 찬란한 별과 유성으로 생기에 차 있었읍니다. 방대한 우주와 비교할 때 나는 얼마나 초라하였는지 몰랐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나에게는 감사의 마음이 떠 올랐읍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땅이며 하늘이며, 모든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그의 자녀인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때 경험한 바는 아직도 나의 내부에 살아 있습니다. 나는 우주의 광대함에 크게 압도당했읍니다.

이때에 나는 자연주의자였던 윌리엄 비비³⁾가 다른 자연주의자 테오도르 루즈벨트⁴⁾를 방문한 기사를 회상하였던 것입니다. 방문에 관한 글에서 윌리엄 비비는 매일 저녁 새거모어 언덕에 있는 루즈벨트의 집에서 대화를 나눈 후에는 두 사람이 함께 잔디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 보며 누가 하늘 오른 쪽 구석에 있는 희미한 페가서스 별자리를 먼저 찾는지 시합을 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 중 누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것은 안드로메다의 나선상형 은하계야. 그것은 우리 우주의 은하수만큼이나 크지. 그리고 수백만은 하계 중의 하나란 말이야. 750,000 광년이나 떨어진 거리에 있다네. 태양계의 태양보다 큰 별이 천억 개 이상이나 되는 은하계지.” 잠시 말을 마친 비비는 루즈벨트씨가 그를 쳐다보며 싱긋이 웃고는 “이제 보니 우리는 상당히 작구먼. 집으로 들어가 자세”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을 때 그는 무엇을 생각했으리라고 보십니까? “이로써 나는 인간이 아무 것도 아닌 줄 알았도다. 이 일은 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도다” “모세가 심히 높은 산으로 이끌리어 갔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았고 말씀을 주고 받았으며……”(모세서 1:10, 1—2) 모세서 1 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눈을 들어 저

가 지음을 받은 이 세상을 보았더라. 모세가 보니,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끝과 지음을 받고 있고 또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의 자녀가 있어 이 일을 심히 놀라며 기이하게 여겼더라.”(모세서 1:8)

이에 사탄이 모세에게 나타나 유혹하며 큰 소리로 모세에게 명하였다. “나야 말로 독생자니 나를 경배하라” 하니

“모세가 심히 두려워 하였더라. 저가…… 지옥의 비참함을 보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을 불러 힘을 얻더니, 명하여 가로되, 사탄아 내게서 떠나라. 이 한분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하니

“사탄이 떨기 시작하고 땅도 동요하더라. 모세는…하나님을 불러 가로되 독생자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명하니라,

“이에 사탄이 큰 소리를 지르며… 거기 곧 모세 곁에서 떠나가는지라…

“사탄이 모세 곁을 떠나자 모세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는 성신으로 충만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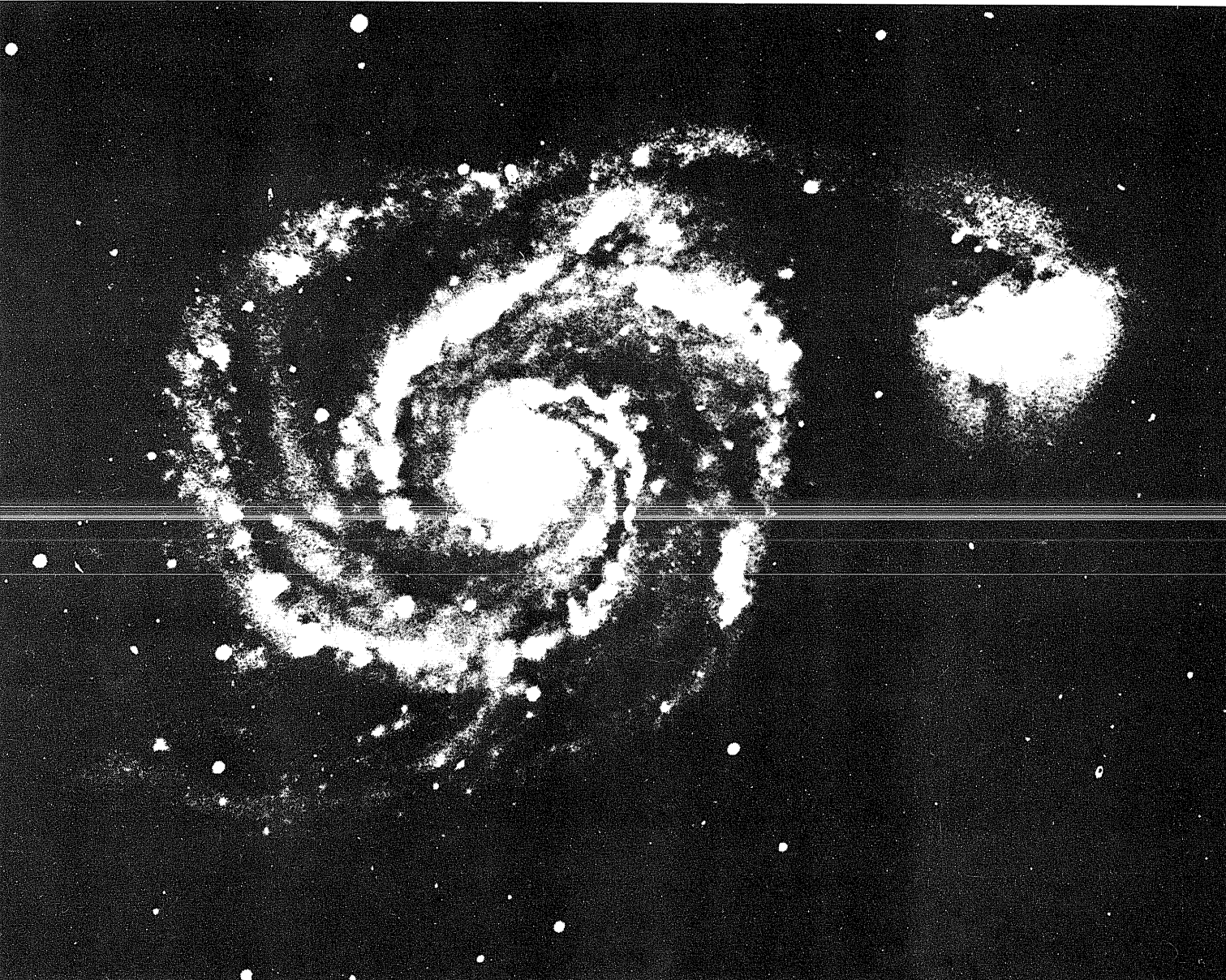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라. 이는 영광이 모세 위에 있음이더라……

이어서 모세는 땅과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보았읍니다. 그는 많은 땅도 보았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불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비옵나니, 어찌하여 이들이 이러하오며 당신은 무엇으로 이를 만드셨나이까? 제게 말씀하소서 하니,

“보라, 주의 영광이 모세 위에 있으므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열

③ 비비, 윌리엄(1877—1962) 미국인. 자연주의자, 작가.

④ 루즈벨트, 테오도르(1858—1919) 26대 미국 대통령.



굴과 얼굴을 대하여 이야기하더라.
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 스스로의 목적이 있어 내가 이것들을 만들었느니라……

“또 나의 권능의 말씀으로 내가 이것들을 창조하였으니……

”또 수 없는 세계를 내가 창조하였나니, 나 스스로의 목적이 있어. 이를 창조하였고, 나는 아들 곧 나의 독생자를 시켜 무수한 세계를 창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이 세상과 그 주민의 이야기만을 네게 들려 주노라. 보라, 나의 권능의 말씀으로 없어진 세계가 많이 있고 또 지금 존재하는 세계도 많도다. 이들은 사람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로되, 내게는 다 헤아릴 수 있는 것이니라. 이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요 내가 이들을 알고

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모세가 주께 말하여 가로되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종에게 자비를 베푸사 이 세상과 그 주민과 그 하늘에 관하여 내게 말씀하소서. 그리하면 당신의 종이 만족하겠나이다 하니,

“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은 그 수가 많으니 사람이 헤아릴 수 없도다. 그러나 나는 헤아릴 수 있나니, 이는 내 것이 됨이니라.

“한 세상과 그 하늘이 없어지면 다른 것이 임하나니, 나의 일이나 말씀에는 끝이 없느니라.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19~22, 24~25, 30~33, 35~39)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모든 창조는 이 한 가지 목적 주 하나님의 자녀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주기 위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를 봄으로써 창조의 방대함과 그 목적을 처음 알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그 이루신 바를 통해 알았던 사람은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누가 감히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므로써 자신의 확신을 표명했다. 나는 아이다호 주의 중첩한 산중의 베어 호숫가에 누워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바를 증거한 잊지 못할 경험을 한바 있었

읍니다. 다음과 같은 글을 보면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을 하늘로 돌려야 한다.”

모세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주께서는 지구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던가를 말씀하시며 자녀들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여 알 수 있도록 가르칠 것과 “그러므로 이를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곧 어디서든지 모든 인간은 반드시 회개해야 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절단코 하나님 나라를 율법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깨끗지 아니한 것이 그 곳에 거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계명을 주어 너희 자녀에게 이 일을 자유로이 가르치게 하노니 이르되

“범법으로 말미암아 타락이 오고 이 타락은 사망을 가져오느니라. 너희는 물과 피 그리고 내가 만들 영으로 세상에 태어나나니, 이같이 하여 흠으로부터 생령이 되었노라. 그러할진대 너희는 몸과 성령으로 하늘 나라에 또다시 태어나 피 곧 나의 독생자의 피로 정결케 되어야 하나니, 이로써 모든 피로부터 거룩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영생 곧 불사 불멸의 영광을 누리느니라.

“이는 물로써 너희가 계명을 지키며 영으로써 의롭게 되며 피로써 거룩하게 됨이라.

“그러므로 하늘의 기록, 보혜사, 불사 불멸의 영광이 있는 평화로운 것, 만물의 진리, 만물을 살리며 만물에 생명을 주는 것, 지혜, 자비, 진리, 정의, 심판에 따라 모든 것을 알며, 모든 권능을 가진 것, 이것들을 너희 가운데 머물게 하느니라.”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절정의 시기에 올 나의 독생자의 피를 통하여 모든 인간에게 주는 구원의 계획이니라.” (모세서 6 : 57—62)

따라서 세상의 창조, 구원의 계획은 모두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마땅히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는 “어린이의 간청”이라는 시를 쓴 마미 젠 콜이 적절하게 표현한 어린

이들의 소원에 적응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린이입니다.

온 세상은 나의 출생을 기다렸읍니다.

온 땅이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큰 관심으로 주시합니다.

문명이 아직도 방향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나에 따라 내일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린이입니다.

나는 내가 전혀 모르는 세상에 왔읍니다.

왜 왔는지를 나는 모릅니다.

어떻게 왔는지도 나는 모릅니다.

나는 호기심과 관심으로 차 있읍니다.”

“나는 어린이입니다.

부모께서는 나의 운명을 양손에 갖고 계십니다.

내가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은 부모가 크게 좌우합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제발 내게 주십시오

내가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연마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제발 내게 주십시오” 할 때 이에 대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게 되는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면 줄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부모인 우리들은 행복을 주는 그러한 사항을 지니고 있는지요, 모세에게 제시된 바와 같은 하나님 계획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청년이 행복의 요소라고 생각하는 바를 모두 열거한 표를 만들었읍니다. 그는 부, 명예, 명성, 성공 및 사랑 등을 열거 하였습니다. 이에 참으로 많은 사항이 열거되어 있었으며 자신으로서도 행복의 요소를 모두 열거하였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그 표를 나이가 든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이가 든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가장 중요한 것을 열거하지

않았네. 그것은 마음의 평화일세.” 이 청년은 당시 친구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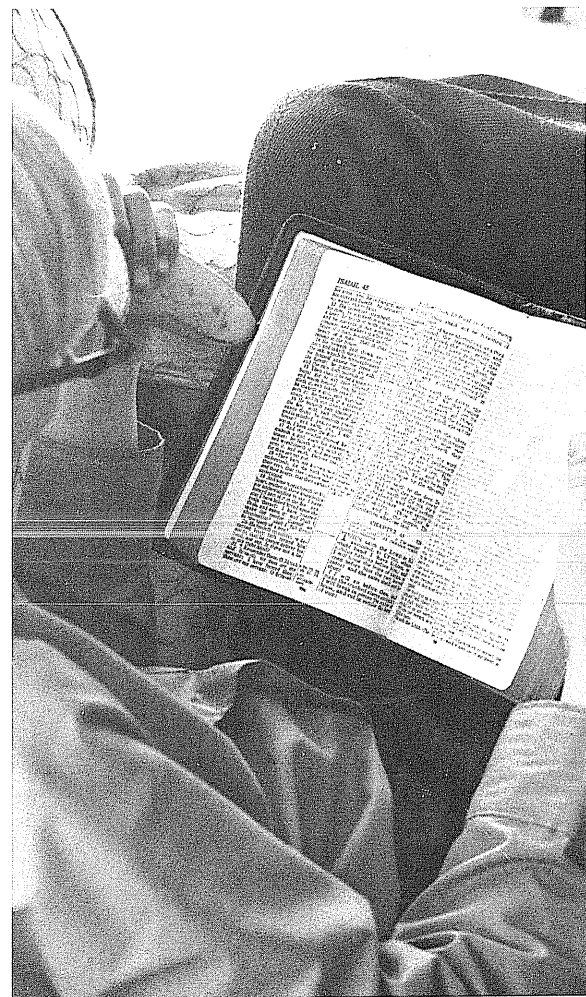
마음의 평화 즉 깨끗한 양심은 데이비드 오우 벅케이 대관장께서 행복의 첫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관장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저녁에 맑은 양심으로 자리에 누워 오늘 하루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마음 상하게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것과 수없이 많은 다른 미덕 및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앎 : 메저렛 서적사 1967년판 458페이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이외에도 자신이 참되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 욕망과 감정의 조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 및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어린이가 부모에게 바라는 두 번째 것 즉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연마하여 달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잊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봉사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행복의 반려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문제로 가득차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문제가 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축복된 존재인 것이며,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뒤를 따르도록 훈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축복을 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① 도움을 펼침, ②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집행하는 일을 삼가함, ③ 하나님의 율법과 국법을 지킴, ④ 의를 위해 굳게 서서 악과 싸움, ⑤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전파하며, 무엇보다도 큰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해도 잘 기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자녀의 생애를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도합니다. 아멘. 圖



금년 4월에 있었던 교회의 연차 대회가 끝난 후 어느 신앙심이 깊고 이에 관심을 가졌던 교인 한 분이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놀랄만한 업적에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사탄을 우리로부터 몰아내지 못했으므로 여러분의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사탄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더 적절히 말해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사탄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삶을 통하여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물리쳐야 하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삶에 있어서 고귀하고, 영적이며, 가치있는 모든 것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된다는 사실을 엄숙히 증거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것은 회원 여러분의 홀

륭한 모범과 업적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일에 악마가 자기의 영토를 지배할 권세를 갖게 될 것이라고 그의 자녀들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교성 1:35 참조) 도덕적인 타락의 행위, 격증하는 살인 행위, 불법 행위 등으로 이러한 상태가 오늘날 그대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성스럽게 여겨지던 모든 표준이 신성을 모독하고 반항하려고 하는 급진적인 집단의 압력으로 무참히 짓밟히며 무시되고 있습니다. 악에 이끌려서 눈이 먼 사람들은 마약, 알코홀, 매춘 행위, 외설 잡지, 부정한 음모 등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영적인 인생의 참 가치를 무시해가면서 돈을 버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멀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악행을 하도록 꾀이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 의롭게 나가는 것입니다. (딤후 6:5~7 참조.)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우리가 입은 영

적인 보호의 옷을 벗기려고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었다고만 생각하면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만일 인간의 범법 행위가 계속 상승하고 이 세상이 부정으로 가득차 있다면 곧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없애기 위해 커다란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늘의 보호를 받기 위해 우리가 갖는 유일한 희망은 도처에 있는 인간의 마음에 의로움과 겸손함을 확립시켜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성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시며 저들 가운데서 통치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답게 생활하려면 참으로 용기와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사탄의 유혹에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합당하게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받은 대로 합당하게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
십이사도

우리의 책임 : 세상을 구원함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마를 그들의 삶에, 가정에, 하나님의 성전에, 성찬식이나 기타 교회 모임에 불러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경전을 가지고 있으며 평생토록 우리를 지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 계신 예언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다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특별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훌륭한 행위를 보임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국립 소년단의 저명한 지도자 한 분이 쏘트레이크 시를 방문하여 교회의 소년단 지도자들과 만난적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가 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소년단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훌륭한 면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가 세

상을 구원하리라고 믿읍니다.이것은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그것은 사실이며 이제 나는 여러분께서 항상 자기의 책임을 기억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분에게 그의 말씀을 인용해도 좋을지를 묻는 편지를 보냈읍니다. 나의 이러한 요청에 그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보내 왔읍니다. “저는 당신께서 인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사실 저는 당신의 교회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갖는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은 정말로 위대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교회나 교회 회원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만일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다할 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읍니다. 우리가 복음의 원칙을 저버릴 때마다 누군가가 우리의 행동을 주시해 보고 있으며 우리와 교회의 영적인 가치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실성은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에 의미를 더해 줍니다.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러한 의미를 강조하셨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커다란 책임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러한 책임은 교회의 지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은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것은 인종과 국가를 단합시키며 오늘날 인류를 갈라 놓는 장벽을 없애주는 유일한 계획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저버리고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는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없읍니다. 오늘날 세계 도

처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율법에 거역하며 이미 확립된 거룩한 질서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겠읍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하며 이중적인 도덕의 표준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과 평일이 다른, 이중적인 생활을 해서는 안되겠읍니다.

최근에 어느 개종자는 물론 교회에 와서야 “달콤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왔으며 그가 먼저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개종하게 된 여덟 가지의 이유를 들었읍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적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1. 전전한 가정 생활. 가정은 친구나 학교나 사회보다도 훨씬 더 개인의 태도와 목적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정은 젊은이들이 훈련을 받는 가장 훌륭한 장소입니다. 이상적인 말일성도 가정은 확신과 화평과 행복이 넘치는 높은 표준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2. 자기 신뢰와 책임. 모든 교회 회원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신뢰와 책임감을 배웁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개인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3. 도덕적이며 신체적인 훈련.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살인과 술 취함이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이니라. (갈 5:19, 21~2) 데이비드 오우 맥케이 대관장께서는 항상 도덕의 표준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제와 자기 훈련과 극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

*번역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의 5장 21절에는 이 문구가 빠져있음

셨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께서는,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는 아무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절제하지 못하는 열정과 욕구를 지닌 사람보다 더 무자비하고 두려운 폭군이 있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복음 교리 [북크래프트사])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마 26 : 41)

4.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젊은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 6 : 1~3) 또한 그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느니라”(히 5 : 8)

순종은 지상의 부모에게만 국한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5. 범사에 완전하고 뛰어나도록 노력함. 복음이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 : 48)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예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삼 27 : 27) 그는 완전한 삶을 사시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며, 내가 행하는 바를 너희가 본 대로 너희도 행하라”(니이 31 : 12)고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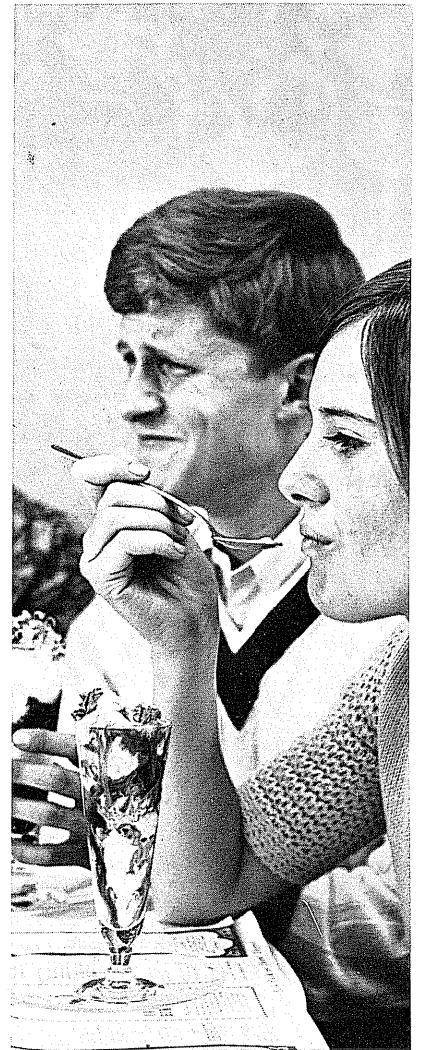
6. 순결과 결혼 성약의 준수. 금년도에



미쓰 아메리카로 뽑힌 로라레아 쉐퍼양의 첫 번째 공식 기자 회견 내용을 듣고 마음이 든든한 바 있었는데 그녀는 자기는 혼전 성관계를 반대하고 있으며 마리후아나나 유산은 불법이며 파멸로 이끄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계속했습니다. “나는 표준이 될 만한 대학생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느껴요.” 그녀의 개인적인 행동의 표준이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훌륭한 모범이 되었겠습니까?

부정은 결혼 성약을 깨치며 심한 경우 당사자를 이혼까지 이르게 하는데, 이혼이란 자녀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대개의 경우 그들은 마약, 부도덕, 기타 악습에 빠지게 하며 교회의 출석과 활동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만일 모든 부부가 결혼 성약을 성실하게 지킨다면 오늘날 세상에는 것처럼 많은 문제나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과 신뢰와 영원한 가족 목표의 모범을 보인다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결혼이 성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7. 높은 교육 표준.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바꾸어 말하면 빛과 진리니라”(교성 93 : 36)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닌 즉, 너희는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 참으로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또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교성 88 : 118)

우리는 또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예지는 어떠한 것이든지 다 부활할 때에 우리와 함께 부활하리라. 만일 어느 사람이 근면하고 순종심이 강하여 다른 사람보다 한층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었으면 장차 오는 세상에서 그만큼의 유익을 얻

도의 판단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조금히 행동하지 않고 사물을 깊이 생각하고 활용하는 데서 발전됩니다.

이러한 여덟 가지의 의미깊고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고 개인의 생활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복음만이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인 행동의 표준에 맞는 생활을 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세상적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히 지킬 때 우리는 아무 것도 잃지 않게 됩니다. 이는 지상 생활을 것처럼 합당하게 하면 우리가 지상을 떠난 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품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고귀한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받은 예언자 리하이는 가족과 몇 사람을 이끌고 성스러운 도시를 떠났습니다. 광야에서 삼일 동안 지낸 후 그들은 흥해로 향해 흘러가는 강가의 계곡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니일 2 : 6 참조) 도중에 리하이는 반항적인 두 아들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흐르는 물을 보며 그는 큰 아들 레이먼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 너는 이 강물을 닮아 쉬임없이 달음질 쳐 의의 샘에 이를지어다!”(니일 2 : 9)대개의 강은 산골짜기의 계곡에서 나오는 맑고 깨끗한 샘에서 그 원천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이 바다까지 흐르는 동안 주류와 합쳐지는 지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류 중에는 오염이 되어서 주류를 더럽히는 수도 있으나 본래는 깨끗한 것이었습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를 때까지 강물이 전부 오염되는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이 상징적인 비유와 얼마나 흡사합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영은 태초에 무죄하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에서 구속하여 주셨으므로 인간은 또 다시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게 되었느니라”(교성 93 : 38)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염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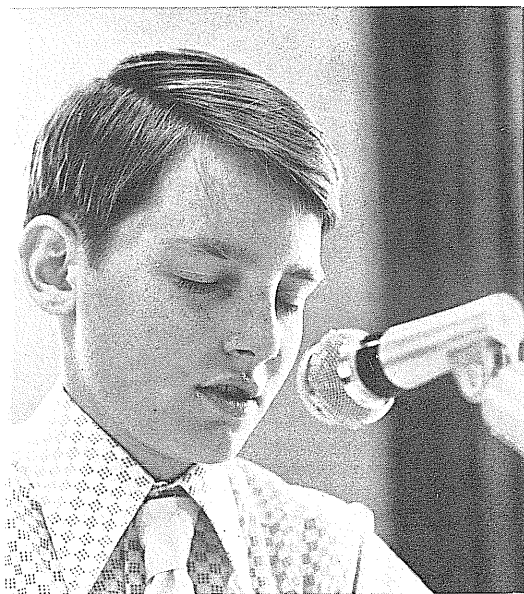
두면 구세주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 : 3)고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책임은 질 만한 연령에 이른 어린 아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저 사악한 자는 와서 불순종과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로 인간의 자녀로부터 빛과 진리를 빼앗아 가느니라”(교성 93 : 39) 우리는 이 계시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는 순진하므로 마치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샘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염된 강줄기가 주류를 향해 흘러 들어 오듯이 우리의 인생 역시 우리가 악의 지류를 흘러 들어 오도록 방치해 둔다면 오염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막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악의 지류입니다. 죄란 결코 행복이 아닌 것이며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심을 파괴하며 끊임 없이 과오를 범하는 인간의 영적인 삶을 완전히 타락시킵니다. 부모에 의해서 교육이 잘못 받거나 혼란된 자녀는 악마의 유혹에 굴하기 쉽고 영원히 자신의 삶을 망치게 됩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못한 것은 아무 것도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의 길을 택한 자가 승리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일찌기 배울수록 우리의 삶은 보다 훌륭하고 결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확고하고 쉬지 말며 불굴의 의지를 지녀 교회에서 사탄의 무리를 제거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가 가르치는 일에 대해 훌륭한 모범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지식을 친지나 이웃과 나누게 되며 우리가 중사하고 있는 사업의 거룩함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關

으리라”(교성 130 : 18~19)

8. 끝으로 “상식”이라고 이 개종자는 말합니다. 상식이란 꾀변이나 특별한 지식 없이도 느낄 수 있는 훌륭하고 진전하고 실질적인 판단력입니다. 누구나 어느 정



가장 슬픈 이야기

세상에 전해진 이야기중 가장 슬픈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슬프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가장 큰 기쁨을 잃었을때 비로서 이런 표현이 가할까 합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카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카인은 인류가 시작되는 찬란한 여명기에 태어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약속받고 한 인간이 받을수있는 온갖 축복을 약속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삼라만상이 모두 새롭고 깨끗했으며 하늘과 땅은 서로 화합하고 가까워 하나님은 직접 인간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거룩한 천사들은 자주 인간을 방문하여 가르치곤 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거울이 될만한 과거의 역사도없었고 또 누구의 행적이나 본을 따를만한 과거의 인물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직접 하늘에서 주시는 시현과 그리고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지식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 위에 카인은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 하고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을 부모로하고 태어났습니다.

카인의 부친 이었던 아담은 창세때에 천지창조를 도운 분이었고 뭇 천사들의 장이었으며 그위에 이지상에 태어난 최초의 인간이었고 그리하여 인류의 아버지가 된 사람입니다.

카인은 이런 사람을 부친으로하여 태어날수 있었던 영광을 받았으며 또 그역시 그의 부친 못지않은 축복을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말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영원한 벌을받고 뭇사람들로부터 유리되어 세상 이곳저곳을 방황할수밖에 없는 유랑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형제 자매님들, 카인이 받은 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벌 입니다.

그것은 몇년 혹은 몇 수십년 징역 살이를 하고나면 풀려나게되는 인간 세상의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벌은 철저하게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유리 당하게 되는 영원하고도 엄격한 벌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카인은 이런 무서운 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선 카인의 범죄는 무지로 범한 죄가 아니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카인 역시 하나님과 교통할수 있었고 축복을 받았고 직접적인 하늘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리고 물론 신권을 소유하고 있었음니다.

이렇게 하늘의 온갖 은총을 받고 하나님 세계의 일원이었던 그가 무지했음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빛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보다도 사탄을 더욱 사랑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모세 5:28) 값진 진주 모세서 5장 18절을 읽어보면 카인이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욱 사랑하기 전에는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 했기때문에 사탄이 카인을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카인의 마음속에 사탄이 침투하면서부터 저주와 벌을 받기까지의 자세한 이야기는 모세서 5장 18절부터 3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모세서 5:29~31절을보면 카인과 사탄이 은밀히 살인모의를 하고 그리고 카인이 오히려 사탄을 부리는 자가되어 득의 만만하게 여김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카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이렇게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음에도 그는 오히려 그의 행위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모세서 5:33)

그러나 이런 가증스런 행위를 처음으로 보시고 카인을 벌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담입니까? 아니면 어머니 이브였습니까? 아니면 그의 많은 형제들이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카인의 살인행위를 제일먼저 아시고 그를 질책하시고 벌을 주신분은 하나님 아버지 였습니다. 그리고 카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모세 5:41)

형제 자매님들, 이 카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듣고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 입니다만 다시한번 무엇인가 느낀 점이 없으십니까?

꼭 동생을 살해하는 자라야만 카인이라고 불리울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작은 카인이 자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수있는 하늘의 온갖 축복과 가르침과 인도를 받고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마음 한구석에 형제가 잘 되는것을, 또는 칭찬 받는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때는 없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일고있는 죄악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수 없오되, 하나님께서 카인의 죄를 아셨듯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할분이 제일먼저 아시고 맙니다. 아마도 형제의 눈은 교묘하게 속일수 있을지 모르되 하나님의 꿰뚫어 보시는 눈은 절대로 속이거나 피할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진심으로 회개함이 없이 계속 형제의 눈을 속이거나 계명대로 살지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증한 자를 사탄에게 아예 넘겨버릴 것입니다. (모세 5:23) 이렇게 되었을때의 자신의 비참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 자매님, 부디 이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 왕국의 자녀가 될수있는 참된 성도가 되도록 노력 합시다.

하나님보다 인간사의 일들을 더욱 사랑하거나 세상에 더욱 머리나 신경을 쓰는 근시안적인 성도가 되지말고 영생을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인간의 일을 더욱 사랑하고 그에 더욱 정신과 시간을 소비한다면 필경 사탄의 유혹이 뽕치고야 맙니다. (모세 5:18)

부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계명대로 삽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 나누며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그리하여 카인이 자손만대에까지 끼친 오명과 저주를 우리는 결코 전하지 않고 우리의 후손에게 부끄러움이없는 조상이 되어 봅시다.

이 모든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부선교부장 이 호남

